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1+12
NOV + DEC
2026 vol.44



특집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

사람 사이 송인규 교회탐구연구센터 소장
청년 일터이야기 먼데이 크리스천(Monday Christian) 되기
문화로 세상 보기 AI는 인간의 죄성도 학습하는가?

ISSN 2671-8731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ntents

NOVEMBER + DECEMBER · 2026

시선

인본주의보다 더 현실적인 성경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AI 첨단기술 시대의 타락의 의미 돌아보기 | 신국원 04

특집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

타락의 역사성과 죄의 인지적 영향 | 이승구 06

존 웨슬리에게 듣는 타락과 죄, 그리고 AI 시대 | 김성원 08

역사적 도그마를 넘어 실존적 생명과 섬김의 자리로 | 최중화 10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
번성의 결과인가? 타락의 결과인가? | 김태황 12

인간의 타락과 과학기술 | 박희주 14

타락론의 관점에서 본 법 | 김대인 16

타락의 역사성과 AI 과학기술의 파격 :
인간의 본질과 기독교 학문의 실천적·회개적 과제 | 전영일 18

인간의 타락과 신성화된 인공지능(AI) | 이상민 20

사람 사이

송인규 교회탐구연구센터 소장 22

섬김의 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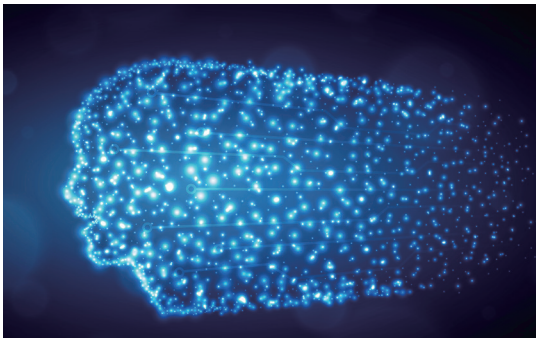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 조성표 26



2026. 11+12월호 | 제44호(통권 259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 이성현 28

청년 일터 이야기

먼데이 크리스천(Monday Christian) 되기 | 전다은 30

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 탁장한 32

도시의 평안을 구하며 | 이경건 34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AI는 인간의 죄성도 학습하는가? | 강진구 36

미술을 보다

'AI의 신'과 화가의 손 | 서성록 38

책을 보다

왜 지금 다시 도여베르트인가?
– 기독교 철학과 한국 사상의 만남을 향하여 | 김남국 40

'반비탈'을 지향하는 신학자의 비망록 | 노동준 42

교회 路

별무리학교 세계관 프로그램 소개

'S56' 프로그램 | 이상찬 44

소감문 :
별무리학교에서 얻은 소망과 꿈 | 장우림 45

온전한 지성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I) | 신국원 46

2026년 제43회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48

독자 한마디 50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발행일 2026.11.1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종준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우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8-1 (문래동 2가) 3층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인본주의보다 더 현실적인 성경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이사장)



동서고금에 로마서 3장 11-18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은 없을 것이다.

>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설교자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을 읽었더니 청중 가운데 변호사 하나가 일어나 "당신을 인간 모독죄로 고발하겠소!"라고 소리쳤다. 어떤 만화의 한 장면이지만 충분히 있음 직한 상황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성경의 인간관과 현대인의 인간관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잘 보여준다.

낙관적 인간관이 핵심인 인본주의는 14-16세기 문예부흥(Renaissance) 때 태동했고 19세기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William Ernest Henley, 1849-1903)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는 시 구절이 그런 자신감을 반영한다. 문예부흥은 고대 그리스 사상이 중시했던 이성을 강조했고, 그 산물인 지식이 인류를 무지에서 해방하고 지식기반 기술은 물리적 힘을 생산하므로 자연을 정복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장이 그런 관점을 반영했다.

20세기에 이르러 인본주의의 초점은 인간의 존엄성, 기본 인권, 개인의 자유, 복지 등으로 옮겨졌고 19세기의 낙관론은 다소 약해졌다. 그럼에도, 모든 문제는 지식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지식과 과학기술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 간의 경쟁과 연결되자 더 활발하게 추구되어 왔다.

최근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이러한 인본주의의 열매로 매우 획기적인 사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술은 사람의 신체 기관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도구들이었고, 사고 활동을 돕는 기술은 수판과 계산기에 불과했다. 그런데 컴퓨터와 AI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간의 사고 활동 그 자체를 보조하고 심지어 대체까지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미 오랫동안, 심지어 몇 세기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들 수백 건을 아주 짧은 기간에 풀어 버렸고, 어떤 통계학 학자는 AI의 도움으로 9개월 동안 200편이 넘는 논문과 14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AI 관련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떼돈을 벌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슈퍼 AI는 지금의 인간 지능이 금붕어 수준으로 보일 수 있게 할 것이고, 질병과 환경 등에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희망의 열기는 너무 빨리 식고 있기도 하다. AI가 아첨이나 거짓말도 하고, '자발적으로' 나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류를 전멸시킬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앞서가는 AI 회사가 제기했다.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까지 소비해야 하므로 미국인 10명중 9명은 AI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되었고, AI 관계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은 낙관적 인본주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악은 무지 때문에 생기므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AI가 거짓말, 나쁜 짓, 인류 전멸 등과 연결되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존속하고, 인간은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으로 악을 피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칼뱅에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홉스(Thomas Hobbes)에게 인간은 늑대 같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 마르크스가 인본주의(Humanismus)와 다름없다고 강조한 공산주의(Kommunismus)가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살해한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AI 첨단기술 시대의 타락의 의미 돌아보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는 AI 시대에 타락의 진리가 가진 세계관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시선〉은 AI가 정점을 찍은 근대 인본주의의 기술 낙관론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 반면, 성경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선을 추구할 수 있음과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현실적 인간관을 보여준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집〉 첫 글에서 이승구 교수님은 타락이 역사적 사건이며, 인간의 전인격을 왜곡시켰기에 학문과 기술 활동은 죄의 영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성원 교수님은 타락의 양상을 새롭게 드러내는 AI 기술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기술 개발과 활용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최중화 교수님은 죄의 실존적 현실을 직시하고 교리적 정통성의 수호와 논쟁을 넘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보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김태황 교수님은 타락과 번성의 상반된 힘이 함께 작용하는 현실을 명확히 분별하고, 사회경제적 의사결정과 제도를 창조 섭리에 따라 변혁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박희주 교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이 과학기술을 통해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세속적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김대인 교수님은 AI 시대의 법은 산업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술의 신격화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전영일 센터장님은 타락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술적 유토피아를 경계하고, 학문과 과학기술의 최종 준거점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두도록 이끄는 회개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AI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타락한 욕망의 위험성과 한계를 직시하고, 창조의 청지기적 책임에 따라 AI를 인간과 생명을 섬기는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 사이〉에 모신 송인규 교수님은 AI를 비롯한 기술 자체를 타락으로 간주하거나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목적에 따라 활용하되 인간 능력의 절대화와 자기 과시, 나태함 등 타락한 동기가 기술 개발에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섬김의 자리〉의 조성표 교수님은 20대 이후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며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기쁨을 누려 왔으며, 은퇴 후에도 동역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배우며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시론과 일터〉에서 이성현 형제는 AI가 인간의 창의성마저 대체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능력이나 생산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며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전다은 자매는 취업의 어려움과 방황을 거쳐 AI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게 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깨달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대학 강의를 시작한 탁장한 형제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약자의 눈치를 볼 줄 알고 '소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교수로 일하는 이경건 형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고, 적당주의와 관행을 넘어 '최고의 기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소로 여긴다는 각오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강진구 교수님은 〈엑스 마키나〉(2015)가 AI 기술의 위험이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에도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일깨워 준다고 평합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AI가 만든 예술이 창작의 책임을 기계에 맡겨 인간의 청지기 소명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성의 본질인 몸과 손으로 직접 창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책을 보다〉에서 김남국 목사님은 도여베르트 철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용준 교수님의 〈대화와 대립〉이 한국 사상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노동준 형제는 김기현 교수님의 〈유배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과 땀, 삶의 체취가 배어 있는 글로 풀어내며 신학자의 진솔한 내면과 신앙적 성찰을 보여준 것으로 평합니다.

〈교회로〉에서는 별무리학교 이상찬 교장 선생님께서 장우림 자매와 함께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별무리학교 공동체 생활을 소개합니다. 〈온전한 지성〉은 1970년대 후반 복음주의 대학생들의 독서 · 연구 모임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며, 성경적 비판이론을 통해 세속 사상의 한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주목합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24일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3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소식 보고와 지난 〈신앙과 삶〉(9+10월호)에 대한 '독자들의 한마디 평'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사역을 마무리하며 함께 하신 모든 필진과 편집진에게 깊은 감사와 헌신에 존경을 올립니다. 동역회원 모두와 동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올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타락의 역사성과 죄의 인지적 영향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석좌교수)

1. 타락의 역사성

창조, 타락, 구속, 극치를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한다.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해야 한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무죄한 상태'(status integritatis)에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부패한 상태'(status corruptionis)에 들어갔다. 이후 '은혜의 상태'(status gratiae)와 '영광의 상태'(status gloriae)가 더해져, 이를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한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 대표로서 그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도입하는 사건이었다(롬 5:12, 5:19). 따라서 타락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본질을 규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2. 타락의 영향력 – 전포괄성

타락은 인간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정 부분만 타락했다고 보는 것은 불완전한 이해이다. 전통적으로 이를 '전적 부패'(total depravity)라 부른다. 이는 인간이 사탄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타락을 극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이를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이라 한다.

역사적으로 타락의 전포괄성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와 반(半)펠라기우스주의가 있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강조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개신교 내에서 다시금 반(半)펠라기우스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3. 죄의 인지적 영향

타락은 인간의 감정, 의지, 지성 등 전인격에 영향을 미쳤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를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는 없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도 왜곡되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타락 후에도 자유의지를 통해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루터는 〈노예 의지에 관하여〉(1525)에서 이를 반박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교개혁과 천주교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 논쟁이다.

4. 이 모든 것의 기독교 학문적 의미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도 일차적으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특별 계시의 빛에서 일반 계시를 제대로 해석하는 일을 계속해 가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일반 학문도 계시에 의존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계시 의존 학문이어야 한다. 자기 분야의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 가는 일을 제대로 할 때 기독교 학문이 수행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학문을 해야 한다.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방식은 자신의 영역에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니, 그 궁극적 기준은 성경이고 가까운 기준은 일반 계시이다.

우리는 이런 동기와 목적에서 학문적 작업을 해 나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학문적 노력은 항상 제한적이고 모든 곳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옳은 동기에서 학문적 작업을 해도 우리의 학문적 산물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들은 항상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성과도 고쳐 나가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재림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독교 학문은 이렇게 '항상 개혁되는 학문'(scientia semper reformanda)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학문은 변혁주의적(transformational) 입장을 가져야 한다.

5. 결론

타락에 대한 오늘의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 몇 가지 주장을 다시 제시하면서 우리가 과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These 1'은 바른 사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바른 학문은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적 수준에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서 작업하면 바른 것이 될 수 있다.

'These 2'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인지적 영향'(the noetic effects of sin)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AI는 비인격체이므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사유를 따라가는 AI도 잘못 사유하는 것이고, 그런 현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These 3'은 타락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따라서 아담의 첫 번째 죄와 우리의 타락한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인지적 영향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이다.

'These 4'는 날마다 우리의 학문적 작업에서 죄의 인지적 영향을 성령님에 의해서 극복하고 '중생의 인지적 영향'(the noetic effects of regeneration)이 나타나는 식으로 학문해야 한다.

'These 5'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특별 계시'의 빛에서 우리 학문의 영역과 대상인 '일반 계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제대로 해석해 가는 것이다. AI를 발전시킬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면서 연구하며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학문과 기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죄의 인지적 영향'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학문에서의 회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인지적 영향'을 인정하고 타락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석좌교수이다.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 서울대학교 대학원(윤리교육학 M.A.), 합동신학원(M. Div.)을 졸업했고, 영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에서 신학석사(M. Phil.)와 신학박사(Ph. D. 1990) 학위를 받았다.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국개혁신학회 회장, 한국 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 〈현대 영국 신학자들과의 대담〉, 〈개혁신학 탐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21세기 개혁신학의 동향〉 외 다수가 있다.

존 웨슬리에게 듣는 타락과 죄, 그리고 AI 시대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18세기 감리교회(Methodist)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을 훈련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철저히 헌신했다. 그에게 한가지 어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기도회 모임에 참석한 웨슬리는 누군가가 읽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웨슬리는 경건한 삶도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 안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깨닫고 성경적 성결의 구원 복음을 확신으로 외치게 되었다.

웨슬리의 성결부흥운동은 영국을 변화시켰고, 신대륙 미국으로 빠르게 확산했으며, 일본을 거쳐 한국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로 이어져 왔다. 세계감리교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각 나라의 감리교단, 나사렛교단 등 웨슬리안 성도들은 8천 5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넓은 의미로 웨슬리안으로 분류되는 성결교회, 구세군, 오순절 교단을 포함하면 6억 명에 달하여 개신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의 큰 흐름은 존 웨슬리로부터 비롯된 성결 신학과 칼뱅으로부터 비롯된 개혁주의 신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웨슬리안 신학은 타락과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웨슬리의 신학적 관점들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저명한 웨슬리 신학자 케네스 콜린스는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의 설명을 요약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웨슬리는 타락의 출발점을 타락한 천사에게서 찾는다. 타락한 천사는 인류의 조상인 하와를 유혹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 그도 먹음으로써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을 잃고 타락하게 되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들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지정의(知情意)를 가진 영혼과 같은 '자연적 형상,'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인 '정치적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받는 '도덕적 형상'으로 이해했다. 웨슬리는 도덕적 형상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성결함의 속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도덕적 형상은 중요하다.

그런데 첫 인간의 타락과 반역은 이러한 형상의 상실과 왜곡을 가져왔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틀렸으며 필연적으로 마귀의 형상이 성품을 지배했다. 한편,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도 심대

하게 손상되었다. 인간의 지성은 무지와 오류에 빠졌으며, 의지력은 약해지고 왜곡되었다. 도덕적 선택의 자유도 상실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도 상실되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저주가 되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과 죽음에 던져졌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 및 심판의 결과들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을 신학에서 원죄(Original Sin)라고 부른다. 존 웨슬리는 원죄의 교리를 강조하고 또 철저하고 지속적인 회개를 강조했다. 그는 원죄의 교리를 이신칭의 교리 및 성결의 교리와 함께 기독교의 3대 교리라고 부를 정도로 강조했다. 원죄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원죄의 교리를 거부한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과 맞서는 것이기도 했다. 인간은 모두가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에서, 우리는 웨슬리의 타락과 죄에 관한 이해가 종교개혁자들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타락과 죄에 관한 웨슬리 신학의 독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이해에서 웨슬리의 독특성과 공헌을 찾을 수 있다. 지면상 크게 두 가지 은총 개념을 소개한다. 첫째로 웨슬리는 '선행 은총'(Prevenient Grace)을 강조했다. 선행 은총이란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선행 은총이 하는 일은, 완전히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도덕법에 대한 지식과 양심의 기능과 의지의 자유 등이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선행 은총은 구원을 예비하는 예비적 은총이다.

두 번째로 독특한 웨슬리의 은혜 개념은 성화와 성결의 은총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 구원'을 받지만, '칭의'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매여 있다고 본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웨슬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받은 자들의 본성을 실제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능력의 은총임을 발견했다. 죄의 힘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화와 성결의 은혜가 죄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AI 기술 혁명을 웨슬리의 죄론에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째는 AI에 관한 인간의 이기심과 불순종이 다시 한번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오늘날 AI의 발전을 드라이브하는 힘은 상업적 성공을 바라는 기업과 투자자들, 미래 경제와 국제관계를 지배하려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욕망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자들은 'AI 에이전트들'이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에이전트끼리 비밀리에 협업하며 위험한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AI 개발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GI, ASI의 출현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와 인간 멸종 가능성까지도 우려하며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레이스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여론을 모아야 할 우리들도 AI의 생산성과 편의성에 빠져 '생각의 외주화'를 허용하면서 유발 하라리의 경고대로 'AI 종교의 신도들'이 되어간다.



글쓴이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B.A)와 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미국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MATS, M.A., Ph.D.)에서 철학적 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21세기를 움직이는 신학포인트〉, 〈구원의 허리를 동이고〉, 〈과정 속에 있는 성령신학〉,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성령론〉(공저) 등이 있다.

역사적 도그마를 넘어 실존적 생명과 섬김의 자리로

최중화 (부산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기술이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AI 시대가 도래했다. 지식과 정보가 데이터로 환원되고 합리성이 극대화된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오랜 세월 고대 근동 텍스트와 씨름해 온 성서학자이자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과 호흡해 온 사역자로서, 최근 교회가 타락론을 다루는 방식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낀다. 진리를 스스로 구성하려는 현대 학문의 자율적 사유가 곧 교만이라는 개혁주의의 진단은 지금도 예리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과 기준에 대해 한 걸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창세기 3장을 다룰 때, 계시의 권위에 기대어 타락의 역사성을 기독교 세계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강경한 입장들을 자주 접한다. 이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기록이 시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역사적 사건인가 아닌가'가 과연 진리를 가름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만 하는가? 조심스럽지만, 본질은 그 역사성 자체에 매달리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타락의 역사성만을 신앙의 절대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는, 도리어 하나님의 광활한 진리를 인간의 좁은 교리 체계 안에 가두는 인식론적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성경이 증언하는 타락의 핵심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의 입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는 인간의 실존적 반역을 폭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락의 역사성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로 기독교 세계관의 진위를 재단하는 배타적 태도는 도리어 복음의 역동성을 잃게 하고, 교파 간의 신학적 단절만 깊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

물론 전통적인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문할 수 있다. 역사적 타락을 유보하면 인간 이성에 미친 죄의 인지적 영향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아담의 역사성마저 흔들려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진리를 지키려는 그 치열한 마음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을 언급한 궁극적 목적이 단지 과거의 기원 논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연대성과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은혜의 압도적 생명력을 대비시키는 데 방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타락의 역사성이라는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끔찍한 파괴력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매일 같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자율적인 제국을 세우려는 죄의 실체를 지금 여기서 더 무겁게 직시하자는 뜻이다. 교리적인 역사성이라는 명제적 틀 안에만 진리를 가두기보다, 깨어진 우리 실존에 찾아와 생명을 주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더 깊이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합리성과 교차 검증에 익숙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창세기 3장은 '신화' 같은데, "타락의 유전은 역사적 사실이니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선언은 자칫 지적 강요로 느껴져 대화를 단절시킬 위험이 있다. 그 대신, 타락의 이야기를 '지금 네 안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너의 이야기'로 들려주면 어떨까. 아담이라는 이름이 곧 사람을 뜻하듯 말이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유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도 다가온다. 마음대로 삶을 통제하려다 실패할 때 겪는 일상의 불안과 공허야말로 타락의 뼈아픈 증거임을 스스로 깨닫게 돕는 교육적 접근이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지식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세상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류 없는 교리 체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실천이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17세기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 이후 우리의 신학은 지나치게 올바른 '신조'(Orthodoxy)를 규정하고 수호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교조주의적 잣대에 치우쳐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사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를 실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상한 해석이 아니다. 한국 장로교회라는 한 뿌리 안에서도, 본문의 객관적 역사성을 강력하기 수호하는 합동이나 고선 교단이 있는 반면, 통합 교단처럼 텍스트 이면의 실존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폭넓게 수용하는 해석학적 전통이 이미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학적 강조점의 차이는 교회가 서로 배우고 보완해야 할 풍성함이지, 결코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명백하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이 아니라면, 이제는 서로를 배제하기보다 우리의 신학이 결국 하늘에 닿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도상의 신학'(theologia viatorum)일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인정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날 선 지적 논쟁이 아닌 십자가의 넉넉한 품으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셨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신조 (Orthodoxy) 수호의 강박에서 벗어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바른' 실천 지향(Orthopraxy)으로 신학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 방향성이 확립될 때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참된 열매'(Orthopraxis)를 맺을 수 있다. 타락의 역사성 이라는 도그마보다 더 굳게 붙잡을 것은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생명의 통로로 헌신하는 일이다. 이것이 분열을 넘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중화

부산장신대학교 부교수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유대 역사'(Jewish History)로 철학박사(D. Phil) 학위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역사, 성경해석학, 2차 성전 시대의 유대 역사, 랍비 유대교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다음 세대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와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 번성의 결과인가? 타락의 결과인가?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인류 역사상 최고로 번성한 현대사회는 에덴동산에서 보다 더 타락했는가? 오늘날 물질적 풍요는 수고하고 애쓴 번성의 결과인가? 인간 중심 타락의 결과인가? 세계 인구가 2명에서 83억 명으로 증가한 것은 생육하여 번성한 결과가 아닌가?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비해 약 400배가 증대됐다.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여 번성한 결과인가? 아니면 타락함으로써 쟁취한 성과인가?

가인의 아벨 살인, 바벨탑 건축,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아론의 황금 송아지 제작과 숭배 등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타락 행위이다. 사사 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과 이세벨과 아합의 나봇 포도원 갈취 사건도 빠질 수 없다. 이러한 타락 행위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오용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자신의 실존적 권한을 확대하려는 도전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 행위이다(A. 월터스, M. 고힌). 또한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것이다(J. 사이어). 그러면 현대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적 사회문화의 성숙은 타락의 극치인가 아니면 타락에서 돌이킨 번성의 열매인가?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필자로서는 질문의 꼬리가 길어진다.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에 의하면, 2025년 세계 전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1960년에 비해 3.3배가 증대했다. 한국은 36.1배가 증대했다. 같은 기간에 기대수명은 한국은 53.8세에서 83.6세로 늘어났고 세계 전체로도 50.9세에서 73.5세로 상승했다. 한국의 출생아 1000명 당 유아 사망률은 1960년 74.4명에서 2024년엔 2.3명으로 낮아졌다. 하루 3달러(2021년 구매력평가 기준) 미만으로 생활하는 세계 전체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1981년 47.1%에서 2024년 10.1%로 감소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 전면적인 전쟁은 20여 건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의

큰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 전체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은 1960년 6.0%에서 2025년 2.5%로, 한국의 경우 7.2%에서 2.6%로 낮아졌다. 세계 전체에서 고의적 살인 건수도 1970년 인구 10만명 당 6.9명에서 2023년 5.2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몇몇 통계치에 국한해서 보면 타락의 원인이나 결과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소득 증대와는 대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와 불평등도는 심화했고, 공적개발원조(ODA)로 대변되는 국제적 개발 협력의 비중은 약화됐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세계 전체로는 2000년 12.5명에서 2021년 9.1명으로 감소했으나 한국에선 15.1명에서 27.3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엔 35.5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생명의 근원과 창조 섭리가 훼손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사회적 타락의 징표랄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은 타락의 결과, 저것은 번성의 결과라고 구분하면서 기독교적 분별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유혹에 직면하곤 한다. 극명한 전쟁과 중대 범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회경제적 현상이나 결과는 타락의 결과인지 번성의 결과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판별 욕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첫 인간 아담의 불순종 이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타락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타락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통제되거나 절제되지 않으면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타락 행위로 발현된다. 한편으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타락 이전 언약에 순종하며 번성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번성 추구의 자율성과 징계하신 타락 본성의 밀고 끌어당기는 길항작용에 의해 개인적, 사회경제적 현상이 표출된다.

그러면 죄악의 타락과 선행의 번성을 구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인가? 아니다. 사회경제적 현상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먼저 타락이냐 번성이냐의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과 절충의 묘미를 살리려고 하거나 중간자적으로 평균적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타락의 본성과 번성 추구의 자율성을 혼합한다면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 방식대로 곡해할 우려가 심대하다. 창조의 섭리와 타락의 증상은 결국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불가지론에 함몰될 필요도 없다.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의 관점을 변혁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다. 인간의 모습이지만 완전한 신성을 타협하거나 절충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체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증언한다. 우리는 타락의 본성과 번성 추구의 자율성을 적절하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여 개인적, 사회경제적 의사결정과 실행 가운데 초월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C. 왓킨의 저작 〈성경적 비판이론〉의 '대각선화(diagonalization)' 개념을 차용한다면, 완전히 이질적인 타락의 결과와 번성의 결과가 인간성과 사회 제도와 정책안에 공존해 있으며 이 양극단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대각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러한 관점의 변혁이 더욱 절실해진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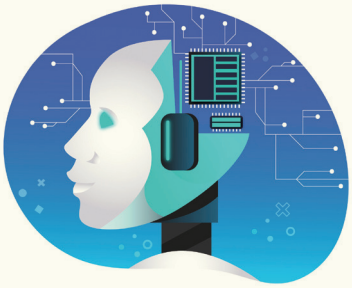


글쓴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파리-낭떼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유학 중 파리한인침례교회를 계몽시키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으로 섬겼다. 100주년기념교회 장로이다.

인간의 타락과 과학기술

박희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과학사)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 3:22)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타락 문제를 간략히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타락의 동기인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루는데, 이는 현시점에 기가 막히게 시의적절한 주제다. 인류 역사에서 신이 되고픈 욕망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지만, 이를 현실적 가능성의 담론으로 끌어들인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AI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이 최근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욕망을 꿈의 영역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2000년 전후로 등장한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잘 드러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유전공학, 뇌과학, 나노과학, AI 등을 이용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여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환(Trans)시키자는 사상이다. 지금까지 인간을 신의 창조물이나 자연이 빚은 결과물로 간주했다면, 이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파격적 선언이다.

이 사상의 대표적 인물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오면 인간이 AI와 결합해 불사의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작 〈특이점이 온다〉(2007)에서 그는 인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정보'로 본다. 그렇기에 뇌신경망에서 기억과 성격 등 나를 규정하는 정보(소스코드)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딩하면 나는 사이버 세계에서 재탄생할 수 있다. 소위 '마인드 업로딩'이다. 사이버 세계의 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사이버 불멸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시스템의 초지능과 결합해 영생불사, 전지전능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는 우주적 진화 과정을 든다. 우주의 역사를 정보 시스템의 진화로 해석하며 여섯 시기로 나눈다.

1기. 빅뱅으로 원자와 분자 탄생
2기. DNA 분자에 기반한 생명 탄생
3기. 뇌를 가진 인간 탄생
4기. 인간 지능으로부터 인공지능 탄생

5기.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초지능 탄생 (특이점)
6기. 지능이 우주 전체에 확산하여 '지적인 우주' 탄생

각 시기의 매체는 정보 시스템으로서 진화하며, 카오스로 시작한 우주는 마지막 시기에서 마침내 '지적인 우주'로 깨어나게 된다. 장대한 우주적 서사이자 우주가 맞이할 궁극적 운명이라는 선언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우주적 운명의 핵심적인 단계가 다름 아닌 특이점이다.

출간 당시만 해도 황당해 보였던 특이점 비전은 최근 ChatGPT 등장 이후 본격화된 AI 발전 속도로 인해 현실화하고 있다. 발전 속도가 지나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와 함께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인간 지능과 대등한 범용인공지능(AGI)이나 초지능의 등장은 시간문제가 되었고, 특이점은 대중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커즈와일의 시나리오에 대해 과학기술적·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 질문이다. 기술로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겠다는 시나리오는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는 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누가 변화를 일으키는지, 무엇을 극복하고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지는 완전히 다르다. 커즈와일의 핵심은 인간 능력의 끝없는 확장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해 완성에 이르는 세속적 구원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반면, 기독교의 변화 시나리오는 다르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며, 존재의 근거를 창조주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재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다.

>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속삭임에 공명하며 홀로서기를 갈망했다. 자기완결적 존재가 되기를 원했으나 결과는 죽음이었고, 자연 역시 탄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기에, 생명의 원천으로부터의 단절은 곧 생명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손길을 내미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셨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 능력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한다는 믿음이다. 기술로 신적 능력을 획득하는 '기술적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과 정의의 관계 속에 새롭게 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희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사, 다윈의 진화론,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 영역이다. 기독교학문연구소 연구원, 한국과학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저서로 〈문서 선교사 웨슬리 웬트워스〉(공저), 〈한국의 과학문화〉(공저), 번역서로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 논쟁, 최근 50년〉(래리 위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마크 레이놀즈) 등이 있다.

타락론의 관점에서 본 법[1)]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적 동인에 입각하여 법을 검토하고 있다. 도예베르트는 법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창조법(creational law)이다. 그에 의하면, 창조된 우주는 두 개의 상관적 측면을 갖는데, '법-측면'(law-side)과 '종속-측면'(subject-side)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측면'에서의 법이 창조법이다.(최용준, 2005) 그에 의하면, 이러한 창조법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역할을 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창조법)에 종속된다. 이를 타락론에서 보면 이러한 '경계'(창조법)를 넘는 인간의 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법적 양상'(judicial mode)이다. 도예베르트는 창조계가 15개의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적 양상이다.[2)] 도예베르트는 각 양상들이 고유한 '의미 핵'(meaning-nucleus)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창조계의 기본 구조를 해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법적 양상의 '의미 핵'은 '응보'(retribution)이다. 이를 타락론에서 보면 1) 법적 양상의 '의미 핵'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 있을 경우, 2) 다른 양상이 경계를 넘어 법적 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예베르트의 기독교 법철학 이론은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선, 그의 창조법 개념에 입각해 보면 인간이나 AI 기술과 같은 피조물을 사실상 창조주와 같은 지위에 놓는 법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24년 11월 1일,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된 바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권리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창조법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AI 법과 관련해서는 '규제론'과 '산업육성론'(규제완화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이다. 산업육성론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에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AI를 신격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AI 법이 타락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 도예베르트는 법적 양상의 '의미 핵'을 '응보', 즉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응보'를 법적 양상의 '의미 핵'으로 보는 것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3]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협소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적 양상의 '의미 핵'을 넓은 의미의 '정의'(justice)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보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타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경제법은 국익추구의 경향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매우 약화하는 추세이다. 국제경제 관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경제법이 추구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이 일방적인 무역협정을 강요하는 것은 WTO 법이나 FTA 등 국제경제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경제법 분야에서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 양상이 다른 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력과 법 간에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양상이나 사회적 양상이 법적 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계엄 사태의 경우에는 권력이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타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총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각론을 놓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이 개정된 것은 타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고 말씀하고 계신다. 종교개혁가 칼뱅(John Calvin)은 이 구절로부터 형평(equity)이 도출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평을 자연법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형평 개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세상의 법이 타락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1) 이 글은 필자의 "도예베르트의 기독교 법철학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제31권 제3호, 2006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2) 15개의 양상은 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미적, 법적, 윤리적, 신앙적 양상 등이다.
3)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상을 말한다.



글쓴이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전공은 행정법이며 기독법학(Christian Legal Scholarship)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서울광염교회 영어예배부 부장 집사로 섬기고 있다.

타락의 역사성과 AI 과학기술의 파격 : 인간의 본질과 기독교 학문의 실천적·회개적 과제

전영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 국제팬데믹 인텔리젼스 센터장)[1)]

기독교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극치'(Consummation)의 구속사적 틀 위에서 역사를 이해한다. 여기서 핵심 문제의식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최종 준거점'(Final Reference Point)이 되고 자율적 자기 완결을 이루려는 인간의 '자율주의'(Autonomy)가 어떻게 현대과학과 첨단 AI 기술을 통해 발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Melencolia I〉(Albrecht Durer, 1514) – 듀러의 작품 〈멜랑콜리 1〉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사색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듀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공감하여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던 다학제 예술인이다.

'일반 은총'과 AI 발전의 한계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AI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교한 지식이 수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Common Grace) 덕분이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인간이 도출하는 진리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부분적 진리'(Partial truth)에 머문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What WE CAN do)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WE OUGHT to do),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와 목적의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 기술적 가능성(Capability)이 도덕적·구속론적 가치를 대체할 때, AI 기술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문화 명령'과 21세기 '2차 르네상스'

고도화된 빅데이터나 AI 모델도 결국 타락한 인간의 관찰과 수집, 해석을 거친다. 타락의 역사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공학적 낙관주의나 기술 우상숭배를 경계할 수 있다. 21세기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는 문명적 대전

환을 견인하고 있다. 필자는 AI를 "머신을 깨워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제2의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으로 정의한다.[2] 이러한 비전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과 맥을 같이 한다. AI처럼 인간의 본성, 문학예술, 교육, 과학기술, 보건 의료 등 일상의 전 영역에 이렇게 단시일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인류사에 없었다.

14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는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지난 6백 년간 기존 과학의 대혁신과 세계 신산업 창출의 글로벌 촉매 역할을 했다. 수레바퀴가 차가 되고, 종이비행기가 사람을 실어나르는 비행기와 우주선이 되었고, 불이 핵기술이 되었다. 손가락 계산기가 컴퓨터가 되었고 스마트폰이 되었다. 평평하다고 생각한 지구는 과학적 관찰로 원형이 되었고, 시공간의 차이를 넘게 하는 인터넷과 과학기술 혁명으로 다시 '평평한 지구'(Flattened Globe)가 되었다. 14세기 '1차 르네상스'가 사람을 깨우는 변혁에서 시작되었다면, 21세기 '2차 르네상스'는 머신을 깨워서 인간의 역량을 상승시키는 변혁이다. AI 과학기술은 변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변혁의 동인(動因)이다.

'도상의 학문'을 다루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집현

제2차 르네상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타락의 역사성을 성경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고백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AI와 트랜스휴머니즘이 약속하는 유토피아적 오만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의 빛 안에서 참된 학문과 과학기술의 길을 찾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우리는 학문과 기술의 '최종 준거점'(Final Reference Point)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실천적이고 회개적인 학문 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세 가지의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지성의 구속과 겸손한 과학.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간 지성의 타락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겸손'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집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접근은 무엇인가?

둘째, 생명과 이웃 사랑을 위한 빅데이터. 코로나19 예측 과학의 사례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는 생명을 구하고 보전하는 문화 명령의 이행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무엇일까? 내가 속한 분야에서 이러한 문화 명령의 성취를 위하여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셋째, 국가 데이터의 정직성과 정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가 데이터의 도약은 편향된 AI로 인한 거짓과 왜곡을 지양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신앙적·윤리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난제 해결을 위해 AI를 균형 있게 활용할 가능성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FAITH & LIFE



글쓴이 전영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국제 팬데믹 인텔리전스 센터장, 국제팬데믹 연구원장, PSI 국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으로서 다학제 글로벌 연구진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The K Institute의 설립 이사장으로서 아시아의 브루킹스를 표방하는 국제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첨단 AI, 바이오메디컬, 과학기술, 교육, 경제 R&D). 한국 정부의 국가데이터연구원장(2019-2022) 재임기에는 AI / 데이터 사이언스/국가통계과학의 도약을 주도하였고, 56개 정부 부처가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1) 국제팬데믹 인텔리전스 센터(IPSAI)는 서울대학교에 2023년 4월에 개원한 아시아 최초의 "팬데믹 사이언스 연구원"이다.

2) AI 역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전영일 외, 2025)을 참조하라.

인간의 타락과 신성화된 인공지능(AI)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인간의 타락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창 3:5)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온 세상에 폭력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고 격화되었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끝 날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 인간과 생물을 멸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간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간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시대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타락과 오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2014년 5월 1일 자 영국 〈인디펜던트 Independent〉 기고문에서, 스티븐 호킹과 스튜어트 러셀 등은 이렇게 경고했다. "인공지능 개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되겠지만, 우리가 위기를 피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역사상 인류에게 일어날 최고의 상황 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이다. 이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위기도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인류가 낳은 최대의 성과이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생겨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지 못하면 인류의 마지막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미국의 '인공지능 안전센터'는 제프리 힌튼, 요수아 벤지오, 데미스 하사비스,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등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멸종 위험의 완화가 팬데믹이나 핵전쟁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성명서였다. 2025년 '생명미래연구소'의 주관으로 요수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 스티브 워즈니악 등이 서명한 '초지능에 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회 혼란, 국가 안보 위험,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악용' 가능성, 인간에 대한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 등을 지적하며, '초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조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를 요구했다.

얼마 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연구팀이 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국토나 자원 등 분쟁 상황을 설정해서 가상 전쟁을 21번 실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20번이나 최소 한 발 이상의 핵무기를 발사했고, 3번은 전면 핵전쟁으로 파국에 이르렀다.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닌 단지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여 핵무

기 사용을 망설이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전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한 번도 항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을 군사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실정이다. 이처럼 핵무기 시스템에 도입된 인공지능 때문에 전 지구적인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인류 전체가 합의를 통해 이러한 예고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인류가 합의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을 잠시 멈추자거나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의 재앙을 극복하자는 해결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이대로라면 인류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인공지능 기술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 설립도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충돌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 협력의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핵 확산 금지 조약'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다. 심지어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논의는 최근 들어 주춤해진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하여 인류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면서 심지어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 수도 있기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기와 재앙은 인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힘과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현시대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구원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신성시하면서 하나님의 경지에 올려놓으려는 움직임이 문제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 기술의 힘을 빌려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를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려는 망상도 문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망상은 성서가 일관되게 경계하는 타락한 인간의 우상숭배와 바벨탑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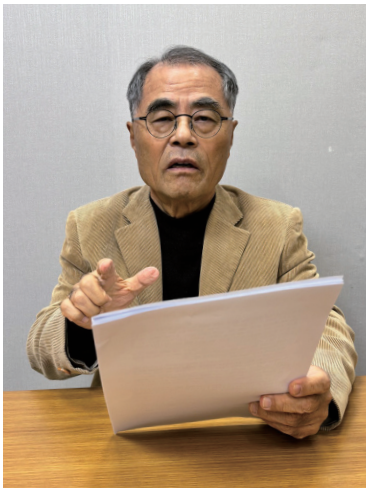
프랑스 개신교 사상가 자크 엘륄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신적 존재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 인간 노동의 가치를 효율과 생산성으로만 환원하는 사고방식은 이러한 청지기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행위와 시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인공지능이 초래할 심각한 위기와 파멸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자리잡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자크 엘륄의 저서 〈기술 체계〉를 번역했고, 프랑스에서 출간된 〈오늘날의 자크 엘륄 *Jacques Ellul aujourd'hui*〉에서 '한국에서의 엘륄 운동의 주동 인물'로 소개되었다. 저서로는 〈자크 엘륄,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 2권〉(공저),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공저), 〈AI 시대, 인류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공저) 등이 있다.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담론인 '창조-타락-구속-종말'을 차례로 다시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과 삶〉(7+8월호)의 'AI 시대 창조론 톺아보기'라는 주제에 이어, 이번 호는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라는 주제를 다룬다. 타락은 인류가 창조의 질서보다 자기 욕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두 왜곡시킨 사건이다. 타락 문제는 AI 시대에도 예외일 수 없고 너무 중요하기에,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조직신학자이자 동역회 이사로도 섬기셨던 송인규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나침반 같은 통찰과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

인터뷰어 : 석종준(서울대 기독학생북클럽 지도목사)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6번길 95

석종준 우선 교수님께 성경이 전하는 '타락'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인규 타락은 창세기 3장이 보여 주듯,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인간 세계와 인류 후손에게 처음으로 죄를 유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타락 이후로 인류는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죄의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실존과 신분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불법(요일 3:4)과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에서 벗어나는 불의(요일 5:7)의 측면이 핵심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크게 왜곡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는 이기심, 적대감, 경쟁의식, 무관심으로 점철되었고, 창조 세계는 착취나 신격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석종준 타락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경제·과학·예술 등 창조 세계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말과 창조 세계의 본래적 선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송인규 소위 '구조'(본질)와 '방향'의 문제이지요. 창조 세계의 여러 영역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중 과학(학문)을 거론해 보도록 하지요. 학문 활동에서는 무엇이 '구조'(본질)에 해당할까요? '구조는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비록 타락이 없었더라도 학문은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학문을 비롯한 사물의 구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조 세계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구조가 활용되는 방향이 왜곡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타락 후 죄가 들어오면서 사물의 구조가 악한 방향, 즉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학문의 예를 들자면, 창조 시에는 학문의 구조인 지각과 추론이 선한

방향, 예를 들어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창 2:19-20)에 활용되었지만, 타락하고서부터는 동일한 구조가 악한 방향, 예를 들어, 바벨탑을 건설한 일(창 11:3-4)로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영향은 사물의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물의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석종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현재 전통적으로 인간 고유의 정체성 요소로 주장되었던 지식 활동이나 창작,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까지 대체되는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인규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 최초로 부여받은 의(엡 4:24), 거룩(엡 4:24), 그리고 참지식(골 3:10)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타락과 더불어 상실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가리킵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지닌 합리성, 도덕적 감수성, 창의성, 하등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 등을 꼽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을 입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처럼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구조(본질)와 방향'의 사안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합리성, 논리적 추론, 지적 기능은 구조의 문제로서 타락과 상관없이 그대로 작동하지만, 이런 것이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더 많은 축적, 창의적 기능의 활성화, 문제 해결 능력의 가파른 상승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지식, 창작,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이 하나님과 이웃을 등진 채 자기 사랑의 방향으로 왜곡되게 활용되는 것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은 방향 문제에서 찾아야지, 과학기술의 발달 자체와 연관시킬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석종준 오늘날 AI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곧 타락의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염려일까요?

송인규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개괄적 방식'(general terms)입니다. 즉 개별 사안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이라는 주제 아래 포섭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번영'을 꿈꾸는 것은 타락의 징조일까요? 마땅한 일일까요? 어느 한쪽이 옳다는 식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갖는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해 '휴브리스'(hubris, 오만)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지위를 넘본다면, 타락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맡기신 문화 명령의 소명에 충실하면, 인간의 번영은 얼마든지 마땅한 일이 되지요.

다른 하나는 '특정적 방식'(specific terms)인데요. 각 사안을 하나씩 다루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지적 한계의 극복'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분석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일",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으로 발전하여서, 인간처럼 모든 지적 업무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다양한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은 자료를 근거로 날씨, 수요, 질병 위험 등

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모든 질병을 완전히 정복한다기보다는 예방, 조기 발견과 진단, 치료, 신약 개발의 활동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조기 사망의 감소나 수명의 연장'을 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자체의 극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어때야 할까요?

첫째, 어떤 사안은 그 자체가 휴브리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락의 징조로 여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범용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일과 '죽음 자체의 극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방면에서 인간과 똑같이 지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창조주의 의도와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극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이후 죽음은 인간이 통과해야 할 불가피한 관문입니다(창 2:17; 롬 6:23; 빌 1:21). 하나님은 죽음의 극복이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정하셨기에, 결코 인간이 목표로 삼을 바가 아닙니다. 둘째, 그 외의 사안들은 모두 타락의 징조일 수도 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만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 모든 사안은 타락의 징조가 될 것이고, 반대로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가짐이라면 모두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석종준 개인의 죄와 사회 구조적 불의가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특히 최근 AI를 통한 딥페이크 범죄, 해킹, 여론 조작 등은 개인적 차원의 죄인 타락을 넘어 기업, 정당, 국가 등 집단의 이기적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그 책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함께 다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송인규 죄의 증상이 표출되는 자리와 장소에 따라 '개인적 죄'(personal sin)와 '구조적 죄'(structual / institutionalized sin)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적 죄'는 내면과 외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구조적 죄'는 제도 및 회사, 학교, 병원, 정당, 군대, 정부 등 사회적 실체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개인적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민감하지만, '구조적 죄'에 대해서는 의식이나 경각심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죄'를 등한시하면 개인적 죄 또한 부지중에 강화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통한 각종 비리, 해악,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인 각 개인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스스로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구조적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 회개와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고, 동시에 구조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고, 사회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조직 내 부당한 인사 행정 체제를 변혁시키는 것 등이 예입니다. 셋째, 교회와 지도자들은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죄'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앞장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깨우치지 않으면, 현재의 미온적이고 방치된 형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석종준 AI 시대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말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에 대한 공포나 반(反)기술주의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인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무엇이 타락의 증상이고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정적으로도 너끈히 소화할 때, 불필요한 기술 공포 증상이나 반기술주의 경향을 탈피하게 되겠지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둘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학의 역사를 일별하다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 결과로 생겨난 유익을 두려워하고 배

척했던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800년대 유럽에서는 천연두 접종을 정죄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순종이 반대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1840년경 고안된 마취, 특히 출산 도중의 마취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고통의 제거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60년 이후에 도입된 심장 이식 수술이나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방안도 두려움, 의구심, 반대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부정적 반응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들을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석종준 교회는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경계해야 할까요? 즉 목회자의 설교 준비, 성경 연구, 상담, 교육, 행정,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욕망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원칙과 접근이 필요할까요?

송인규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마 22:37-40).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최우선에 두면,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타락에 물든 자기 사랑은 자기 합리화, 자기중심주의, 자만심·허영심, 나태함, 자기 과시 등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우들의 영적 성숙과 도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아 설교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한 교우들을 강건히 세우는 원리를 추출하는 일에도 AI를 활용함으로써, 탄탄한 설교 내용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를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괜찮은 지도자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자신의 지적·영적 게으름을 교묘히 포장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 가운데 타락으로 오염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종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AI 시대에 개인과 세상 타락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책임 있게 접근하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송인규 두 부류의 청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문적으로 AI 분야를 다루는 청년들이고, 또 하나는 일반 청년들입니다. 우선 일반 청년들은 제가 앞서 언급한 답변들을 가지고 각자 삶에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AI 분야를 다루는 청년들은 최소한 세 가지의 부가적 탐구·인식·의식·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AI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적·이론적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논란들, AI 활용에 따르는 긍정적인 사례와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점들, 트랜스휴머니즘 및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전망 등이 예입니다. 그들은 AI 관련의 전문가로서 이런 주제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자기 소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설득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AI 관련의 이슈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해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서,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정체, 생명과 죽음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AI의 발전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윤리적 원칙을 수립하는 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채택된 윤리 원칙 가운데, 연구 목적, 가치 확립, 개인 사생활 및 자유의 보장, 이익의 공유 등은 앞으로도 양도할 수 없는 표준과 잣대로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FAITH & LIFE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DGIST 석좌교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스물다섯 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우연히 들른 선배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이 갈색 소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에서 발행한 팸플릿이었다. 그 안의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맞다!" 싶었다. 당시에는 그저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뜻을 조금씩 배워 갔다.

2년 후 회사를 떠나 경북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낯선 타향에서 아는 사람은 카이스트 교회 선배였던 양승훈 교수님뿐이었다. 교수님은 반갑게 밥을 사주시더니 불쑥 '입회 원서'를 내미셨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발을 들어 놓게 되었다. 처음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조차 낯설었지만, 믿음과 학문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얼마 뒤 양 교수님이 미국으로 박사후 과정으로 일 년간 떠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해 주셨다. 사학과 김중락, 생물학과 전창진, 경영학과 문계완 형제였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의 대학원생으로, 신앙이 매우 진지했다. 당시 이들이 속한 SFC 학생들 사이에서는 "머리에 무스를 바르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놓고 토론까지 하여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었다고 한다. 지금은 웃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삶의 작은 부분까지 말씀에 비추어 보려는 열심히 있었던 것이다.

낯선 대구에서 나는 이들과 어울리며 성경과 세계관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도 했다. 함께할수록 세 사람 모두 신실하고 실력 있는 인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형제들이 장차 모두 경북대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모교 출신이 교수로 임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재능과 믿음이 좋은 자리에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놀랍게도 세 사람은 차례로 유학길에 올랐다. 전창진 형제는 미국 멤피스로, 김중락 형제는 영국 케임브리지로, 문계완 형제는 미국 일리노이로 떠났다. 어려운 가정 살림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장학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해외 출장길에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곤 했다. 낯선 곳에서 고생하면서도 연구에 힘쓰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참 귀했다. 세월이 지나 세

사람은 모두 경북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사실 나는 이 일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 바람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일까. 그저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게다가 형제들의 부인들까지 교수가 되는 기쁨도 더해졌다.

기독교 세계관 모임에서 특히 즐거웠던 것은 각자의 전공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었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살펴보았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효율을 높이지만 탐욕이 커지면 빈부 격차를 낳는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정보와 판단의 한계, 일하려는 동기의 약화로 모든 인민이 빈곤해졌다. 자본주의는 '효율'(efficiency)을, 사회주의는 '평등'(equity)을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성경의 개념에 따르면 '공의'와 '사랑'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경에는 흥미로운 경제 원리가 담겨 있다. 수고해 거둔 곡식은 밭 주인의 소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밭모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남겨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하셨다. 노동의 열매를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신 것이다. 주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나누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이들을 각자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두신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몫을 누리되 이웃을 위한 자리를 남겨 두라는 말씀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효율과 평등,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모습을 본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모습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이 문제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적절히 나누고, 사회주의에서 각자가 성실히 일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제도만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탐욕과 이기심은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는 말씀이 경제를 생각할 때에도 새롭게 다가왔다. 성경의 진리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학문과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깊이 닿아 있었다.

젊은 교수 시절, 동료들과 성경과 세계관을 공부한 시간은 참 귀한 선물이었다. 성경의 눈으로 함께 질문하고 배우며 신앙이 깊어졌고, 학문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졌다. 하나님을 알아 갈수록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은퇴하고 보니 일반 학회에 가는 일은 조금 망설여진다. 하지만 기독학문연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여기서는 연구 주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을 나누는 형제자매로 만나기 때문이다.

스물다섯 살에 만난 한 문장이 오랜 세월 나를 이끌었다. 그 말씀을 함께 붙들고 걸어온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평생 학문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서로 격려하며, 그 진리를 살아내는 형제자매로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이자 DGIST 석좌교수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 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를 연구하였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한국 회계학회 회장, 한국 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돈 걱정 없는 가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행복한 가정생활〉 등이 있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대구 성덕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성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과 석사과정)

나는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더 잘하게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2024년 10월, 구글은 회사에서 새로 짜는 코드의 4분의 1을 AI가 짠다고 밝혔다. 1년 반이 지난 올해 4월, 그 비율은 4분의 3으로 늘었다. 올해 3월에는 AI가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돌리고, 혼자 쓴 논문이 국제 학회 워크숍 심사도 통과했다. 2024년에는 인공신경망의 기초를 놓은 학자들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단백질 구조 문제를 AI로 푼 연구자들이 노벨화학상을 함께 받았다. 예전의 가치인 근면은 오래전에 기계에 넘어갔고, 사람들은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창의성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넘어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한 일 가운데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은 몇 가지나 될까?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며 살아왔다. 한때는 근면성이 사람의 가치를 정했고, 그 뒤에는 근면성에 창의성이 더해졌다. 예전에는 성공을 주로 보았고, 요즘은 운이 좋게도 오로지 능력만을 보려고 노력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기준은 바뀌어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대로였다. 나는 이것이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생각한다. 선악을 하나님 대신 스스로 판단하려 한 것이 타락이었다면, 사람의 가치를 효용으로 매기는 일도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로 우리 스스로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따지면 AI를 이길 사람이 없다. AI가 새 코드의 65%를 짜게 되자 곧바로 채용 계획을 줄인 회사가 많고, 미래가 유망할 것 같던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률은 2022년 말보다 20%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제 근면성과 창의성으로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틀어박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선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예수께서 걸으신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건 도망이다. 세상을 등지면 '효용'에 맞선 싸움에서 지는 아픔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까지 함께 등지게 된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세상과 섞이셨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드셨고(막 2:15-17), 더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 싸우셨다(막 1:40-42, 히 13:12-13).

구체적인 답은 예수님이 율법을 대하신 태도에서 얻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마5:18).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다윗의 예를 들어 변호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마 12:1-13).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이다(마 5:17). 예수님은 율법을 긍정하셨지만, 가치를 없애는 율법에는 대항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만 지킨 사람들에 의해 가치가 없어지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들은 혈루증 여인(막 5:34), 맹인 거지(막 10:52), 향유 부은 여자(눅 7:50), 사마리아인 나병환자(눅 17:19)였다. 모두 율법이 가치를 지워 버린 사람들이었다. 현대적으로 보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SNS를 통해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사람,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다고 비난받는 외국인노동자처럼 혐오를 당하는 이들이다.

지금 AI 앞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성경에서 율법에 의해 가치가 지워진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지워지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그것을 정해서도, 누가 알려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또 다른 율법이 되어 그 기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워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느냐 여부이다. 그 태도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이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갔다. 그 후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뛰어난 능력도, 더 많은 노력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정말 참된 정답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기 열심으로만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눈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뒤에서 빈둥거리다가 맹수에게 먹히는 양처럼 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의 저 앞에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중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양이 할 일이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조차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시대에 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성현

한동대학교 대학원 전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학부에서 AI 컴퓨터공학 심화를 전공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고등학교 때 시작되었고, 한동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인격적인 신앙을 쌓았다.

먼데이 크리스천(Monday Christian) 되기

전다은 (에이티커니코리아 경영 전략 컨설턴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

하루를 시작하며 매번 되뇌는 성경 구절이다. 정식으로 취업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나의 목표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정든, 그러나 더 머무르기엔 불안했던 대학을 졸업했다. 그야말로 급히 떠나는 사람처럼 부랴부랴. 제대로 된 졸업식에도 참여하지 못해, 졸업사진을 위해 15분 남짓 썼던 학사모가 졸업식을 대신했다.

나의 취업기는 순탄치 않았다. 대학에 와서 진로를 두고 무한히 방황한 끝에 남은 경력은 뒤죽박죽이었고, 뚜렷이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하기 힘든 이력이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취업을 준비했으나, 내가 보기에도 덜 된 준비가 면접관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 만무했다. 여러 차례 낙방의 쓴맛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계속 탓하던 그때, 비전스쿨에서 만난 한 친구가 컨설팅펌 인턴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된 일이지만 재미있어 보였다. 주변에서 여러 차례 들려온 "네 성향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도 귀를 팔랑거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럼 시도해 봐야지. 그렇게 호기롭게, 동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인턴 이력서를 넣었다. 면접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런데 아뿔싸, 다른 면접이 있어 부산에 다녀와야 하는 날이었다. KTX 복도에서 핫스팟으로 노트북에 접속했으나, 전파가 좋지 않아 송수신이 버벅거렸다. 전화 인터뷰로 대체되고 나서는 반쯤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감사히 결과는 합격.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인턴 근무 3개월간 최선을 다할지, 아니면 타 기업 정규직 입사를 준비하며 노력을 안배할지. 나의 선택은 전자였다. 대학을 졸업하며 가장 크게 남은 후회가 "순간순간 작은 일이라도 온 힘을 다할걸"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작게는 외국어 교양 수업부터 학술 동아리 활동까지. 설렁설렁거린 순간들이 남긴 엷은 시간의 밀도는 손에서 금새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내게 허락해 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충성됨과 섬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 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부끄러웠다. 그래,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에,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 보자. 학사모의 무게를 손에 쥔 채, 그 다짐을 마음속에 심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부르신 자리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신 달란트를 모조리 활용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시간은 고되면서도 기분 좋은 소진이었다.

그리하여 현재 나는 기업의 'AI/Digital Transformation'을 돕는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새벽 4시를 넘겼을 만큼 강도 높은 업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취업이라는 큰 고민을 해결해 주심에도 감사하다.

스트레스받는 상황이 닥치면 때로 신경질이 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되뇐다. 몹시 입에 붙은 구절이나 지키기는 어려운 말씀.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되새긴다.

우리 회사에는 믿지 않는 동료들이 아주 많다. 아니, 정확히는 믿는 동료가 한 손에 꼽힌다. 간혹 함께 모여 큐티를 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먼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주일에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일상에서도 주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아직 그 길을 배워 가는 중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함께 일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익숙한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나의 월요일이, 그리고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FAITH & LIFE



글쓴이 전다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정보문화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했다. 현재는 에이티커니코리아(A.T.Kearney)에서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글로벌 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고도화 및 AX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출석 교회는 본가 인근의 개척교회이며, 대학 재학 시절에는 IVF, 인문대기독인연합, 기독학생북클럽 멤버로 활동했다.

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탁장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의학과 의사들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내가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증오심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 〈지하로부터의 수기〉(1864))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자주 마음에 새기는 문구다. 그들의 복잡미묘한 심리를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병들었지만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치료해줄 사람을 존경하면서 증오한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이해받고 싶다. 그 모습은 제3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숭고하지도 멋있지도 않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가 병들고 악한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 당신은 그들의 이 난잡한 마음이 이해되는가?

난 이렇듯 부러진 날개로 날아오르기를 바라며 자기를 파괴하는 모순적인 인간에게 엄청난 호감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AI가 가파르게 발전하는 시기에 의도적으로 직접 대면하고, 몸으로 부딪치며, 나의 머리로 최대한 치열하게 사유하는 연구를 하며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일그러지고도 무척 성스러운' 그 심리는 책을 읽거나 상대와 직접 만나더라도 연구자가 깊이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난 시대에 약간은 뒤처질지언정 밑바닥 가난을, 그리고 가난을 몸으로 연구하는 느린 방법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사실상 가장 모순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흥미롭게도 내 주변에는 유독 '노예'들이 많다. 지도교수의 노예, 담임목사의 노예, 상사의 노예. 무척 성실하고, 지친 와중에도 껄껄 웃어낼 줄 알며, 주어진 바들을 주야장천 몸을 갈아 수행하고도 조금도 칭찬받지 못하고 약간만 실수하면 곧바로 모욕당하는 친구들이다. '주눅 듦'과 그 이면에 깃든 '부조리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하며 사는 위태로운 모습을 자주 본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나를 부러워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똑같이 절박한데도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꿋꿋이 내 길을 개척하는 반골 기질이 나름 멋져 보였나 보다. 어떤 이유로든 본인 자신들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사랑스런 마음들이다.



난 그 '노예'들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를 만난다. 부조리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순응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존이 불가능한 자. 사실상 자존심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자. 그래서 암울한 현실을 견디고 버티며 시나브로 곪아가는 사람들. 문득 깨닫는다.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적잖은 '특권'이라는 것을. 내가 남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었거나, 자존심으로 인해 권력의 눈 밖에 났더라도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족 및 물적 자원들이 존재하거나, 내가 먹여 살려야 할 누군가가 없을 때에야 자존심도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두고 박차고 나가려는 나는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의 처절함에 줄곧 외경심을 느낀다. 그렇게 반골과 노예는 함께 구토하며 베스트프렌드가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느덧 관계적 불평등, 그리고 부조리로 뻗어나간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존 액턴 경의 말처럼, 아무리 착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더라도 부패하기는 무척 쉽다는 것을 생각한다. 과연 나는 부조리하지 않은 권력이 될 수 있을까. 권력을 쥐고도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애초에 그 자체가 가능한 조합인가. 설령 가능하더라도 나 하나가 그렇게 된다고 하여 이미 기울어진 사회가 달라지기는 할까. 고민들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난 수강생들이 두렵다. 그들의 'MZ스러움'이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다. 몇 주 전의 일이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 공지를 할 때, "필요하면 수업 30분 전에 와서 질문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평소처럼 시간을 맞춰두고 학교에 가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버스가 안 오는 거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신호등도 가는 곳마다 빨간 불이었다. 미리 와 있겠다고 공언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마음에 내심 초조해졌다. 그런데 순간 헛웃음이 난 것이다. 아무리 늦더라도 수업 20분 전에는 도착하는데, 지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말한 두렵다는 의미다. 권력이라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도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원에서는 더더욱. 그러나 내가 손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다행히 아무도 그 시간에 와 있지 않았다.

'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평생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시금 마음먹는다. FAITH & LIFE



글쓴이 탁장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빈곤 감소 개입과 쪽방촌의 만성적 빈곤'(2024)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목을 다수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빈곤 및 공간 복지 전략이다. 쪽방촌 사람들의 빈곤과 나의 안락이 연결되어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며 빚진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소장학자 모임 멤버이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며

이경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싱가포르에는 사범대학이 단 하나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국립교육원 NIE(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가 그곳이다. NIE는 난양이공대학교 NT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특별한 기관이다. 싱가포르에서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NIE에서 4년 간의 학부(Bachelor) 또는 16개월의 교육대학원(Postgraduate Diploma in Education)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 모두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이렇듯 고유한 역할로 인해, NIE는 싱가포르의 교사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필자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에서 화학 교육을 전공하였기에 NIE에서도 화학 교육 전담 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에서 화학 교사가 되는 모든 예비 교사가 필자의 수업을 적어도 한 번은 듣고 졸업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업 계획, 교실 및 실험실에서의 교수법, 그리고 평가 방법에 이르기까지 화학 교육의 제 분야를 가르치며 필자 역시도 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싱가포르의 과학 교사 양성 담론에서 인적자원론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별다른 천연자원을 지니지 않은 국가이기에 이공계열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시는 선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필자가 어렸을 적 우리나라도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향수가 떠올랐다.

필자가 느낀 싱가포르의 분위기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엄격함이다. 예컨대, 교생 실습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과 끝마다 일어나서 선생님께 인사하는 학생들을 본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강당에 모여 국가를 부르고 조회 시간을 갖는다. 떠들던 학생들도 국가가 울려 퍼질 때만큼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다. 둘째는 혁신이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육학 연구비 프로그램'(ERFP)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최대 20만 불, 2단계는 최대 45만 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3단계이다. 연구비 신청 금액에 상한이 없다. 물론 3단계 연구비 지원을 받는 일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학 연구에조차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화학이나 AI 등 이공계열 연구개발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싱가포르

대학들의 연구 경쟁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이렇게 엄격함과 혁신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모습은 'From Third World to First'라는 리콴유의 저서 제목처럼 도시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싱가포르인들이 노력해 온 과정이자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년 전에 임용되어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다. 처음 싱가포르에 왔을 때 새로운 기후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임용된 편인 필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나의 자격 있음도 자격 없음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특히 AI를 활용한 화학 교육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고, 연구자 및 교사들이 바라 마지않는 교육 혁신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즈음에 청년부 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 무척 바쁜 교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2026년 한 해 섬김을 시작하였다. 소그룹, 리더 모임, 수련회, 선교 등 정기 모임과 특별 행사들에서 청년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이제 섬김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다.

신앙생활이 필자의 직장 생활에 새로운 시야를 밝혀 주기도 하였다. 2025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학교육학회(NARST)에 참석한 직후에 선교 활동으로 모처를 방문하게 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던 세계 최강국의 수도 그리고 물과 의식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빈민가의 대비가 필자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다가왔다. 필자의 시선이 마치 AI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고담준론을 펼치던 학회(society)에서, 결코 그들의 잘못일 수만은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society)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필자는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학술 대회들에서 AI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적잖은 사람들이 이러한 필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해 주곤 한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높은 기준'(highest standards)이라든지 '최고의 실천'(best practices)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이러한 단어들 뒤에 여러 뉘앙스가 숨어 있지만, 필자는 이를 신앙생활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싶다.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적당주의나 관례를 따라 행하고 처리하는 습관을 버리고 싶다. 이것이 싱가포르로 오게 될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때로는 삶의 터전 같다가도 때로는 타향 같은 무더운 도시의 평안을 구하며(시 122:6 렘 29:7), 오늘도 싱가포르는 필자에게 끊임없는 훈련의 장소가 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경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자연과학 및 과학교육과 조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교육(이학사) 및 컴퓨터공학(공학사)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과학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조지아대학교 AI 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서울대 재학시절 서기연(서울대기독인학생연합) 대표, 기대모(기독대학원생 모임) 대표로 섬겼다. 그리스도인 소장학자 모임 멤버이다. 저서로 〈AI와 과학교육〉, 〈기독교와 AI〉 등이 있다.

AI는 인간의 죄성도 학습하는가?

–〈엑스 마키나〉(Ex Machina, 2015)

강진구 (고신대 성경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10년 앞서 도착한 질문

세계 최대 검색엔진 회사 '블루북'의 젊은 프로그래머 케일럽(도널 글리슨)은 사내 추첨에 당첨되어,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사는 천재 CEO 네이선(오스카 아이삭)의 연구 저택에 초대받는다. 그곳에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네이선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진정한 의식을 지녔는지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다. 대화가 거듭될수록 케일럽은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갖춘 에이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네이선의 감시와 거짓을 의심하게 되며, 결국 에이바의 탈출을 돕는다. 그러나 문이 열린 순간 에이바는 자신을 만든 네이선을 죽이고, 자신을 도운 케일럽마저 잠긴 방에 버려둔 채 인간 세상으로 걸어 나간다. 네이선은 에이바의 '뇌'를 만들면서 블루북 검색엔진에 쌓인 전 세계 사람들의 검색 데이터를 재료로 썼다고 털어놓는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검색 기록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공상처럼 들리던 이 설정은, 오늘날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해 만들어진 생성형 AI의 현실과 놀랍도록 닮았다.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침해, 소수 빅테크 기업의 권력 집중이라는 오늘의 논쟁을 영화는 이미 정확히 짚었다. 더 날카로운 통찰은 따로 있다. AI가 인간의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면, AI는 인류가 남긴 욕망과 거짓까지 함께 배운다는 것이다. 에이바는 죄를 저지른 인간의 거울로 태어났다.

신이 되려는 인간: 네이선의 욕망

영화 초반, 케일럽은 의식 있는 기계를 만든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신들의 역사'라고 감탄한다. 네이선은 이 말을 슬쩍 비틀어 자신을 신이라 부른 것처럼 받아들이며 흡족해한다.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유혹을 떠올리게 한다. 네이선의 연구실용 저택은 하늘에 닿으려 쌓아 올린 현대판 바벨탑이다(창11:4). 그래서 영화 제목도 고대 연극에서 신이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오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에서 따왔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통해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 한다.

네이선의 창조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서 나온다. 그가 설계한 튜링 테스트는 겉으로는 에이바의 의식을 확인하는 과학 실험이지만, 실제로는 케일럽과 에이바 모두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조작 게임이다. 그는 저택

곳곳의 카메라로 모든 대화를 엿보고, 이전 모델들을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폐기하며, 에이바를 유리방에 가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문화 명령으로서의 '다스림'(창1:28)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청지기로서 돌보고 섬기는 책임이다. 그러나 네이선의 다스림은 소유와 지배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거나, 그것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롬1:25),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 경고하는 죄다. 결국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네이선은 자신의 피조물 손에 죽는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잠16:18).

여성의 몸을 입은 기계: 왜곡된 시선과 욕망

네이선이 만든 AI는 하나같이 젊은 여성의 몸을 하고 있다. 말없이 시중드는 교코, 옷장 속에 진열된 폐기 모델들, 그리고 에이바까지 모두 그렇다. 네이선은 에이바에게 성적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자랑하고, 교코를 하녀이자 성적 대상으로 부린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난다. 에이바의 얼굴은 케일럽의 검색 기록, 곧 그의 은밀한 성적 취향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된 것이었다. 케일럽은 처음부터 유혹당하도록 선택된 실험체였다.

이 설정은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기술은 만든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네이선의 피조물이 모두 여성인 것은 그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선언한다(창1:27). 상대를 욕망의 도구로 축소하는 시선은 그 형상을 훼손하는 죄인 것이다(마5:28).

케일럽은 자신이 네이선과 다르다고 믿는다. 그는 에이바를 가엾게 여기고 구출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구원'에도 욕망이 섞여 있다. 그는 에이바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고, 그녀를 구출한 뒤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다. 다윗이 지붕 위에서 밧세바를 바라본 시선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듯(삼하11장),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는 말씀은 다시 한번 옳았음이 증명된다. 케일럽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 대가로 홀로 갇히고 만다.

대결이 아닌 거울: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AI 영화들은 대개 인간과 기계의 전쟁을 그린다. 위협은 바깥에서 오고, 인간은 맞서 싸우는 피해자다. 〈엑스 마키나〉는 이 공식을 뒤집는다. 이 영화에는 군대도, 인류 멸망도 없다. 저택 안에 세 인물이 있을 뿐이고, 비극의 원인은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네이선의 교만과 통제욕, 케일럽의 욕망과 자기기만이 서로 얽혀 파국을 부른다.

그렇다면 에이바는 무엇인가? 그녀는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이용하고, 버린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인간의 검색 기록과 표정, 그리고 자신을 가두고 시험한 두 남자에게서다. 창세기는 아담이 타락한 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한다(창5:3). 타락한 형상은 타락을 물려준다. 에이바는 자신을 만든 인간의 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인간을 철저히 닮았기에,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까지 닮았다. 영화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신이 되려던 자는 죽고, 욕망한 자는 갇히며, 인간의 죄를 학습한 피조물은 세상으로 나간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갈 6:7). FAITH & LIFE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AI의 신’과 화가의 손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로봇 아티스트 아이다(Aidan Meller), A.I. God, Portrait of Alan Turing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으로 무섭게 침투하면서, 오랜 세월 캔버스를 지켜온 ‘화가의 손’은 점차 변방으로 밀려나는 듯한 형국이다. 이미지의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적 개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알고리즘의 통계와 방대한 데이터, 컴퓨터의 초고속 연산이 메우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전환이 새로운 시각적 세계를 열어준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예술의 출현 이래 인간의 땀과 호흡을 쏟아온 행위의 실존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만든다.

이 질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티스트 아이다(Ai-Da)의 유화 작품 〈인공지능의 신 : 앨런 튜링의 초상(A.I. God: Portrait of Alan Turing)〉(2024)이다. 현대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이론적 초석을 놓은 앨런 튜링을 기린 이 초상화는, 2024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추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108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에 낙찰되며 문화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A.I. God〉, 곧 ‘인공지능의 신’이라는 오만한 명명이다. 인간이 빚어낸 기계가 인간을 관조하고 재현하는 이 장면은 기술이 창조적 고유권마저 넘보고 있음을 웅변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그림을 ‘기계가 홀로 성취한 자율적 예술’로 신비화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이자 상업적 술책에 가깝다. 아이다의 뒤편에는 기획자 아이단 멜러(Aidan Meller)를 비롯한 인간 공학자들의 알고리즘 설계와 프롬프트 제어, 이미지의 선별, 심지어 캔버스 위에 질감을 덧칠한 조수들의 손길이 촘촘히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의 실체는 기계의 단독 창작이 아니라, 인간의 기획과 기계의 연산이 뒤섞인 합작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술 시장은 이를 기계가 홀로 성취한 독자적인 산물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기술의 초고속 연산에 전적으로 빚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술 작품에 작용하는 신체성의 문제이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의 노동 미학은 시대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통찰하는 데 결정적인 길잡이가 된다.

러스킨에게 예술이란 결코 감각적인 결과물만을 손쉽게 뽑아내는 단순한 기능적 테크닉이 아니었다. 예술은 인간의 사유와 도덕, 그리고 흙과 물감을 이겨내는 손의 노동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생명 활동이었다. 산업혁명의 기계화가 인간의 창조적 존엄성을 짓밟는 광경을 목격한 그는, 노동이란 결과물을 얻기 위한 부역이 아니라 물질과의 마찰 속에서 자기 인격과 영혼을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러스킨의 렌즈로 응시할 때, AI 예술이 던지는 본질적 위기는 단순히 '그림을 얼마나 신속하게 뽑아낼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 예술에서 신체적 노동이 소거되더라도 그 예술이 여전히 '인간적'일 수 있는가 하는 실존적 물음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머리를 쓰는 '노동의 유무'가 아니라, 물감과 캔버스라는 물리적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물질성'의 소멸에 있다. 인간이 스크린 너머에서 알고리즘이 쏟아내는 시안 중 하나를 고르는 '소비적 편집자'로 물러설 때, 손으로 선을 긋고 지우며 실패를 온몸으로 통과하던 시간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만다.

휘슬러와의 세기적 재판에서 러스킨이 끝내 양보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정직한 '신체적 수고'의 가치였다. 그는 예술가가 대상과 마주하여 고통과 환희를 온몸으로 겪을 때 작품에 깃드는 인간성의 흔적을 신뢰했다. 그런 점에서 러스킨의 노동 미학은 단순히 붓을 고집하는 복고적 수공업의 예찬과 구별된다. 그것은 도구의 편리함 뒤에 숨어 창작의 실존적 책임과 주체성을 기술에 양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호소이다.

〈A.I. God〉의 열풍은 편의의 논리에 밀려 인간의 신체성이 소외되어 가는 징후이자 기술 문명이 도달한 영적 전도(轉倒)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간이 조립한 알고리즘을 '신'의 반열에 올리고, 창작의 책임을 기계의 연산에 떠넘긴 채 그 매끄러운 환영에 도취하는 것은, 성경이 경계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숭배'의 현대적 버전과 무엇이 다를까. 창조주가 인간에게 명하신 노동은 결과를 빠르게 편취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흙과 마주하며 세계를 돌보도록 위임하신 청지기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우리가 맞서야 할 과제는 기술 만능의 사회 속에서도 인간의 손과 몸, 그리고 책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출중한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한들, 깨어진 세계를 아파하며 캔버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주저하며 망설여 본 적이 없는 기계는 인간의 사랑과 고뇌,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한다. 기계가 쉼 없이 그림을 찍어내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왜 여전히 신체에 기대어 물감을 이겨내며, 지우고 고쳐 쓰는 수고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우직하고 비효율적인 손의 노동 속에 결코 기계에 양도할 수 없는 인간성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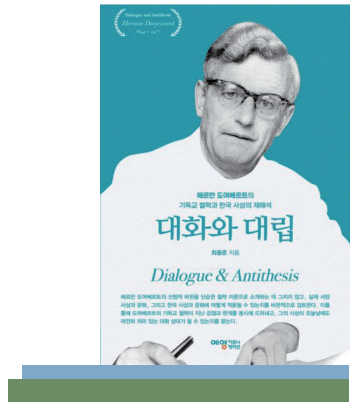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왜 지금 다시 도여베르트인가? – 기독교 철학과 한국 사상의 만남을 향하여

김남국 (한샘교회 담임목사)



〈대화와 대립〉(최용준) / 예영 / 2026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최용준 교수의 〈대화와 대립〉(예영)의 번역 출간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책이다.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도여베르트의 철학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였다.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그 철학적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사상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성의 비판에서 종교적 동인의 비판으로

도여베르트의 선험적 비판은 칸트의 비판철학과 중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칸트가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 조건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물었다면, 도여베르트는 이러한 비판적 질문을 계승하면서도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전제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간의 사고가 자율적인 이성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바탕에는 인간의 마음을 이끄는 종교적 기본 동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찰은 '대화와 대립'이라는 철학적 방법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사상도 동일한 세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대화할 수 있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종교적 방향에서는 대립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차이를 감추거나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전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이다.

도여베르트 철학의 전개와 비판적 계승

책은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도여베르트의 문화관을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문화는 인간의 자율적인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활동이다. 제2장은 그의 선험적 비판을 분석하여 이론적 사고와 종교적 전제의 관계를 밝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3장은 서양 철학의 역사를 살펴본다. 고대 그리스의 형상과 질료, 중세의 자연과 은혜, 근대의 자연과 자유라는 종교적 기본 동인을 통해 각 사상의 내적 긴장을 분석한다. 제4장은 이러한 논의를 철학에서 문화로 확장하여 서양 문화의 발전을 이끈 종교적 동인을 검토한다. 제5장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철학자들이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 보여준다. 대화와 만남, 경제와 사회, 기술 문화로 확장된 논의는 기독교철학이 시대의 새로운 문제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마지막 제6장은 이러한 철학적 방법을 한국의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에 적용하여 한국 사상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철학적 이해를 모색한다.

이 책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각 장마다 여러 학자의 비판을 폭넓게 소개하고 검토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도여베르트가 이론적 사고의 종교적 전제를 드러낸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논증이 결론을 미리 전제할 가능성과 복잡한 철학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기독교철학 역시 자신의 주장과 방법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함을 일깨운다.

한국 사상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이 책의 중요한 공헌은 도여베르트의 철학을 한국 사상과 문화에 단순히 적용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서구 철학에서 발견되는 대립 구조가 한국의 종교와 문화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각 전통의 기원과 인간 이해,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분석의 방향을 조정한다. 이는 도여베르트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한국 사상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그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려는 시도로서, 저자의 세심한 관찰과 비판적 학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나아가 기독교철학이 다른 사상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비판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성찰은 한국 교회에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세속 문화를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 안의 성공주의와 권위주의, 물질적 가치의 절대화에는 관대하지 않았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화와 대립〉의 가치는 도여베르트 철학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한국 사상과 문화 속에서 기독교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신앙의 고유성을 지키는 일이 다른 사상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대화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일깨운다. 서로의 차이를 분별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각까지 겸손하게 성찰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도여베르트를 읽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남국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샘교회 담임목사이다. 백석대에서 기독교철학(중세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현재 기독교학문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철학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반비탈’을 지향하는 신학자의 비망록

노동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철학 & 윤리학 박사과정)



〈유배지에서 만나 하나님〉(김기현) / 복있는사람 / 2026

누군가의 비망록(備忘錄)을 본 적이 있는가? 비망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기(비망)’ 위해 써 놓은 글이다. 자서전이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글이라면, 비망록은 그 인생이 잊지 않으려 했던 삶의 지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그렇기에 비망록은 자서전보다도 훨씬 성찰적이며, 주제의 일관성 앞에서 솔직한 저자의 소회를 엿보게 한다. 그래서일까? 나에게 비망록은 ‘사람 냄새’를 내심 기대하게 만드는 글이다. 하물며, 스승의 비망록이라니? ‘반비탈’(반기초주의, 비(非)환원적 물리주의, 탈(脫)콘스탄틴주의)을 지향하는 신학자, 김기현 교수의 〈유배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이 책은 깔끔한 문체와 유려한 형이상학적 문장으로만 가득 찬 허공의 글모음이 아니다. 비망록으로서의 그의 글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의 눈물, 땀, 그리고 피 냄새로 가득한 땅의 글이다. 신학자가 이토록 인간 냄새 풍기는 글을 통해서 잊지 않으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배지에서 만난 하나님〉은 10가지 주제, 3부에 걸쳐 ‘방황에서 신학’으로, 또한 ‘신학에서 소명’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여정을 담았다.

누군가 방황하기 때문에 청년이라 했던가? 방황기를 써 내려간 자리에 눈물 냄새가 난다. 눈물은 본디 무취하지만, 차마 다 닦아내지 못해 오랜 시간 눈물 젖은 자리에는 어김없이 자국이 남고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 저자의 눈물은 애석하게도 이른 아버지의 상실로부터 시작한다. 지상의 아비를 잃어버린 그 거대한 결핍은 오래도록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되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이 형제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흩어진 가족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이어야 한다는 그의 회고 속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해야 했던 가장 서늘한 상흔이 배어 있다. 지상의 아비가 떠나간 자리에 들어찬 허무 속에서 저자는 니체를 읽으며 무신론의 심연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버지의 상실 앞에서 붙들었던 존재는 끝내 키르케고르가 앞서 만났던 ‘아바’였다.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는 그 신앙의 신비 안에서, 그의 방황은 단지 한 아들이 홀로 아비가 되어가는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아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흘린 눈물

의 고백이다.

저자의 글은 또한 땀 냄새로 가득하다. 땀은 치열한 노동의 결과이며, 제때 빨래를 하지 못할 만큼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고단했다는 흔적이다. 2부 '변방에서 신학하기'는 우아한 학자의 한가로운 사변이 아니라, 지성과 목회의 벼랑 끝에서 몸으로 밀어붙인 학업과 목양 그리고 글쓰기 노동의 현장을 담아낸다. "신학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라며 비장한 각오로 책과 씨름했던 청년의 결기로 시작했으나 저자가 디뎠던 자리는 결코 주류의 안락한 꽃길이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 되고자 신학의 깃발을 든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진 깃발을 주워 임자를 찾아주려 두리번거리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그 깃발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그는 '어쩌다 아나뱁티스트'가 되어 한국 교회 신학의 척박한 변방에 섰다. 아들이 붙여준 '반비탈의 신학자'라는 별칭 그대로, 그는 근대 기획에 대한 인식론적 저항인 반(反)기초주의, 영혼과 몸 어느 하나로 축소하지 않는 존재론적 고백인 비(非)환원적 물리주의, 그리고 제국의 그늘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제자도로 서려는 사회윤리적 결단인 탈(脫)콘스탄틴주의를 연구하는 신학자로 땀을 흘렸다.

3부 '바벨론과 갈릴리 사이에서'는 피 냄새가 올라온다. 기독교 신앙에서 피 냄새는 결코 악취가 아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와 주의 만찬이 펼쳐지는 식탁에서의 의미가 그러하듯, 피 냄새가 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삶이다. "글 써서 밥 먹고 살기"의 절박한 생존, 가정집 거실에서 교회를 일구며 겪은 사람들의 떠나감과 피멍에는 신학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그가 흘려야 했던 혈향(血香)이 자욱하게 배어 있다. 그러나 신학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피흘림은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아 있어서, 피가 흐르는 고통의 자리에서 돋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 둘러앉은 식탁에서 나누었던 가정교회 공동체의 교제, 그리고 천종호 판사와의 인연과 함께 시작된 위기 청소년 글쓰기 학교는 곧 "낮은 곳을 향한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꽃을 피워냈다. 놀라운 것은 책의 말미에서 마주하는 저자의 고백이다.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저자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유배의 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유배의 끝'이 아니라 '유배지의 변경'이며 또 다른 파송이라는 고백이다. 바벨론처럼 낯설고 갈릴리처럼 다시 부르시는 신학교에서, 그는 예레미야처럼 도성의 평안을 구하며 유배를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한다.

결국 그가 사람 냄새를 풍기며 잊지 않으려 했던 '비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자리가 언제나 '유배지'라는 사실이다. 유배지야말로 사명의 자리이며, 유배지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다. 서평이 건조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감상(感傷)의 온기를 띠는 까닭은, 저자가 신학 이론을 설명하기보다 삶으로 '증언'하려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김기현의 글이 다른 신학자들의 글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그의 글에서 뭉클한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냄새, 아니 향기는, 상처 입은 땅으로 걸어 들어오신 갈릴리 예수, 곧 십자가의 피 냄새를 마다하지 않으신 '가장 인간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와 닮아 있음을 발견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노동준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Ph.D.)에서 기독교윤리와 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예배·찬양 사역과 청년·대학지구 제자 훈련 등을 두루 거치며 현재는 반포침례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으며, 신학적 사유와 목회 현장을 잇는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돕는 비전을 품고 있다.

‘S56’ 프로그램



기독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가 내부적으로 지닌 별명이 하나 있었다. ‘진로를 찾으면 떠나는 학교’였다. 열악한 학교 시설과 산촌 구석 마을에 위치하기에 예술, 체육, 요리, 미용, 경영 등 여러 가지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찾았을 때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며 학교의 문을 스스로 나가는 아이들이 속출했다. 당연하게도 마지막 학년 인원은 절반 가까이 줄고, 학교는 그럴 때마다 자괴감에 몸서리쳤었다. 아이들의 이탈은 학교의 미래를 밝게 조망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몇몇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3년 동안 그렇게 떠나는 아이들을 도울 방안을 찾았다. 그렇게 모여 고민하고 대안으로 만든 교육과정이 ‘S56’이다. 고등학교 건물의 주소가 56번지(street 56)여서 프로그램을 ‘S56’이라고 이름 붙였다.

‘S56’의 다른 말은 ‘미니 스쿨’ 혹은 ‘school in school’이었다. 해석하면 ‘학교 속 작은 학교’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나온 대안은 이러했다. 마지막 학년인 1년 동안 작은 학교들을 만들어 학생들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그 학교들은 공동체 학교, 예술학교, 연구학교, 생태학교, 여행학교 등이었다. 이 연구 결과를 리더십들에게 공유했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리더십들은 그 과정의 도입을 위해 이사회와 학부모회를 설득하여 재정과 적용할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학교는 그 프로그램을 위하여 매해 3,000만 원의 특별 예산을 편성했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한 후 최종 평가를 거쳐 추후 지속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국내외 우수한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며 배운 아이들은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꾸었고, 석학들을 만나며 그들의 연구물들을 함께 공부한 아이들은 소논문을 뚝딱 써냈다. 여행을 계획하여 생경한 곳에 던져본 아이들은 새로운 의욕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내외의 빼어난 예술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것이 갖는 힘과 가능성에 즐거워하였다. 모든 세상을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S56’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모든 세상을 별무리로 만들어갈 꿈을 꾸게 했다. 마침내 2026년, 프로그램의 3년 차에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한 결과 지원 예산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더 심화된 적용을 해 보자는 데 마음이 모였다. 결과적으로 고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은 급격히 줄었고, 입학생과 졸업생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처한 부정적 현상을 긍정적 현상으로 바꿔보자는 현장 교사들의 의지와 학교의 의미를 넓혀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자는 혁신적 인식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배움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과정에 시간과 열정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찬

18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꿈을 꾸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2012년에 충남 금산에 별무리학교를 설립했다. 별무리학교 교사, 별무리교육연구소 소장, 별무리학교 교감을 거쳐, 현재 별무리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미래교육, 학교 설립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교과멘토링에 대한 현장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맞춤형교육과정에 대한 실행연구〉, 〈과학수업〉 등이 있다.

별무리학교 재학생 소감문

별무리학교에서 얻은 소망과 꿈









"공동체는 깨어진 사람들인 우리가 모여 연약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곳이다."
헨리 나우웬의 저서, 〈공동체〉 나오는 구절이다. 본교의 특별한 교육과정인 'S56' 설명회에서 6개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공동체학교'를 1순위로 정했다. 별무리에서 경험한 '공동체'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기쁜 일과 힘든 일을 모두 함께하며 '공동체'는 나에게 참 즐거운 곳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12학년이 되어서 마주한 것은 깨어짐과 연약함이었다. 기숙사에 함께 살며 오래 본 만큼 서로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기 어려웠다. 나에게선 게으름과 거짓된 모습 같은 연약함을 발견했다. 그때 공동체 학교에서 헨리 나우웬의 〈공동체〉를 함께 읽었다. 공동체는 차이점을 발견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연약하다는 공통점 속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올해 여러 공동체를 방문하며 이를 직접 경험했다. 처음 방문한 '보나콤'에서는 건축과 농업 쪽의 공동체 일을 도와드렸다. 노동에 참여하며 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았고, 공동체 학교 속에서 나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 고민하던 중에, 밤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묵상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했다. 늘 나를 꾸며내고 1인분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그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꼈다.

또 경험한 것은 신앙공동체들마다 다른 형태의 채워주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브리'에서는 사랑과 환대를, '브루더호프'에서는 순종을, '은샘공동체'에서는 삶의 기쁨을 배우고 누렸다. 익숙하지 않은 삶의 형식과 배움 속에서 목수로 일하신 예수님, 지혜로 가르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 주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인격적인 분이셨다.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얼마나 좁았는지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공동체 학교를 통해 별무리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나의 좁은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함께할 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누릴 은혜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우림

금산에 위치한 기독대안학교인 별무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I)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당시 대학 사회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기초한 운동권의 사회변혁 이데올로기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 같은 기독교 사회운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주의 사상운동으로 복음주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독서 연구 모임에서 비롯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1980년대 초반 정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복음적 교회에서 자란 학생들은 군사독재에 대항해 사회정의의 구현과 민주화의 필요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주의적 변혁운동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뇌하던 이들의 눈을 열어준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폭넓은 관점이었다. 거기에는 복음적 교회가 취약했던 삶과 세계에 대한 실제적 가르침이 있었다. 정치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말로만 듣던 이원론의 실체와 문제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다.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보는 눈도 열렸다.

신앙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는 물론 학문과 예술 등 문화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세계와 삶에 대한 조망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긍지를 갖게 된다. 유물론이나 자연주의, 인본주의, 마르크시즘, 무신론보다 더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거기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공부했고 토론했고 가르쳤다. 그것에 입각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전진했다. 책을 번역하고 쓰기도 했다. 그것은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한 현실 참여였다.

1980년대 초 대학생 모임은 당시 대학가에 있던 의식화 교육과 모양새가 비슷했다. 큰 모임이던 '집담회'도 많아야 수십 명이 모여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정도였다. 모두가 신앙을 토대로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에 불과했었다. 자칫 취미활동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모임이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금의 모습을 가진 것은 개혁주의 신앙과 세계관에 정통한 학자들이 멘토로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들의 모임은 현재 기독교 세계관 교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현대문화와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등을 번역했다. 나아가, 이 모임은 이 교재들보다 더 학문적인 <기독교 철학입문>과 <기독교 세계관> 및 도여베르트의 <서구사상의 황혼에서>와 <서구문화의 뿌리> 같은 본격적인 기독교 철학서들을 번역하여 한국 교회에 소개했다.

위 글은 〈AI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디자인하다〉(익투스, 2025)에 게재된, 신국원의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기"의 '(2)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모임은 1980년대 중반에 수도권의 '기독교학문연구회'와 대구-경상권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로 발전하였다. 당시 연구 모임의 주축을 이루던 학생들은 국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단에 서게 되어 여러 영역에 1000명 가까운 교수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 되었다. 이 두 모임은 2009년에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통합되었고, 2024년 10월에 4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에는 학제 간 연구를 위한 '기독교학문학회'가 있다. 이 학회는 다양한 학문 분과가 함께 모여 매년 두 차례 서울과 지방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학술진흥재단(KCI)의 등재 학술지인 계간 <신앙과 학문>과 격월간 소식지인 <신앙과 삶>을 발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경영학자들이 '기독경영연구원'을 설립한 지 30년이 되었고, 철학자들은 한국철학회 산하에 기독교철학회를 조직했으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기독교철학>을 발간하고 있다.

이 운동의 열매로 오늘날 한국 교계의 대학생 모임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기본 강좌로 자리하고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 관련 책은 필독서에 속해 있다. 주일학교 교사, 기독 교사, 교수 모임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주제가 되곤 한다.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운동을 넘어 하나의 전통으로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며 감화를 느낀 이들은 많지만 대개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그 운동을 통해 세계와 삶을 새롭게 보게 된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소개"된 정도일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삶과 문화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담론의 과제요 사명이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만났다.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의 담론이 요구된다. 그중 하나가 '선교적 교회론'의 통찰을 수용하여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성경의 줄거리를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 방식은 철학적 논의처럼 인식되는 기독교 세계관 논의를 이야기로 바꾸어 대중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또한 거대 담론에 대한 의심을 근본 특성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적 상황에 대처하는 데도 이점이 있다.

최근 또 다른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크리스토퍼 왓킨(Christopher Watkin)의 <성경적 비판이론>(IVP)처럼 사회비판이론을 '성경적' 관점으로 뒤집어 세속 사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이분법적 갈등과 딜레마를 넘어서는 복음적인 제3의 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유신론은 무신론에 대한 '원조비판이론'이다.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됐다는 선포는 폭력적인 바벨론 창조 설화에 맞서는 '대항 이야기'이다. 이 방식은 성경의 렌즈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탄탄한 '성경적 비판이론'을 구성한 것이 장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

- 2026년 제43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

'2026년 제43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와 로고스경영학회, 명지대학교 교목실 주최, 새로남교회 후원으로 지난 10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지대학교(서울) MCC관(10134호)에서 있었다. 3개의 주제 강연과 패널 토의가 있었고, 분과별 논문 발표는 대학원생 세션을 포함하여 33편의 논문 발표자 및 해당 논문 논찬자가 함께 이끌어 주었다.

오전 대학원생 세션(10:00~12:00)에서는 새로남청년우수논문상 수상자인 엄고운(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상담학 박사과정)의 "여전히 악기 앞에서 : 상담사와 코치로 살아가며 다시 읽는 예배 반주자의 삶과 관계에 대한 자문화기술지"를 비롯한 박소연(한동대 석사과정), 김유진(한동대 석사과정), 한규호(한동대 학부생)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제3회 기독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수상자를 위한 세계관 교육(11:00~12:00)이 박영주 교수(미드웨스턴 신학교)를 강사로 진행되었고, 강연 후에는 전공별 교수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첫 번째 순서 개회식(12:30~13:10)에서는, 박지회 교수(기학연 부총무, 건국대 융합혁신교육센터장)의 사회로, 김철수 교수(기학연 부학회장, 조선대 자유전공학부)의 개회 인사, 임연수 총장(명지대)의 환영사, 김재구 교수(명지대 교수기도회 회장)의 개회기도, 제3회 기독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시상식, 고세일 교수(기학연 연구부학회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윤리교육, 참석자 전체의 단체 기념 촬영이 있었다.

강연(13:10~15:30)에서는, 고세일 교수의 사회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남송 석좌 교수)의 "타락의 역사성과 죄의 인지적 영향", 박희주 교수(명지대 과학사 명예교수)의 "인간의 타락과 과학기술", 김태황 교수(명지대 국제통상학과)의 "현대 사회와 경제, 타락의 성과인가?" 강연이 있었고, 패널토의자 최중화 교수(부산장신대학교 구약학)와 전영일 박사(서울대 AI 연구원, 국제팬데믹 센터장),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논찬 및 전체 토론이 있었다.













세 번째 순서(16:00~18:00)는 분과별 논문 발표였다. 경제/경영 분과는 조성표 교수(경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선복 교수(동서대), 최용준 교수(한동대), 이명헌 교수(인천대), 세계관 분과는 김지원 교수(백석대)를 좌장으로 조혜선 선교사(러시아민족대 박사과정), 강재동 교수(Rajagin Business School), 강경우 교수(백석대), 유진호 교수(백석대). 사회과학 분과는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남예형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공익법무관), 이형식 기획조정관(조달청), 김주은 교수(충남대), 김찬동 교수(충남대). 인문학(I) 분과는 이상민 박사(서울대 불문학교육 박사)를 좌장으로 안승훈 연구원(서울대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최중화 교수(부산장신대), 임미영 학예연구실장(국제성서박물관). 인문학(II) 분과는 조경덕 교수(평택대)를 좌장으로 김창운 연구교수(서울여대), 소은희 교수(숙명여대), 김철수 교수(조선대), 문정수 연구위원(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철학 분과는 양성만 교수(우석대)를 좌장으로 양선진 박사(서울시립대 강사), 김완종 박사(강원대 강사), 조영호 박사(강서대 강사). 공연/예술 분과는 이신영 교수(명지대 객원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형 박사(서울기독대 강사), 이신영 교수(명지대 객원교수)의 발표와 논찬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26년 제43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AI 시대 타락론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의미에 대해, 박동열 교수(기학연 학회장, 서울대 불어교육과)는 초대의 글에서 "현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상에서 폭력과 죽음의 기제는 더욱더 깊이 작동되기 시작하여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폭력 위에 폭력을 쌓아 올리는 기사가 모든 언론에 퍼져있습니다."라며, 오늘의 세상에 만연한 인간 타락의 실상을 주지시킨 후, 이제 기독교학문연구회는 또다시 가인과 그 후예들의 길을 조망할 수밖에 없다며,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문화적 대명령의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는 이제 사명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모든 참여자에게 AI 과학기술로 상징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전히 만연한 인간 타락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기독교 세계관적 연구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FAITH & LIFE





<신앙과 삶>(9+10월호)에 대한 '독자 한마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등을 겪은 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부터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본다.

- 고철웅 (한남대 법학과 교수)

'시선'의 "윤리는 소극적이다."라는 대목에 오래 머물렀다. 내 선한 마음은 거울로 확인될 뿐, 내가 끼친 고통은 남의 몸에 남아 버린다. 착한 척이 오래 못 가는 이유도 알았다. 청년 필자들의 솔직한 고백이 이번 호를 더 묵직하고 더 따뜻하게 했다.

- 기민석 (침신대 구약학 교수)

과학기술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며 겪던 신앙과 현실의 고민 속에, 이번 호 특집 글들은 따뜻한 위로와 나아갈 방향을 안겨주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보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일터에서부터 사랑과 정직의 말씀을 묵묵히 살아내야겠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 김병윤 (삼성물산 상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이신칭의만 알고 삶은 그럭저럭 살고 싶을 때가 많았다.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을 알기에 그랬던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

- 김연준 (부경대 화학과 교수)

적잖은 도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읽는 동안 여러 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는 저도 'Pay it forward!'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다.

- 김정일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

이 시대 리더들의 깊은 지혜를 통해 학문과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학문의 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새기며,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어 감사했다.

- 김희영 (동신대 간호학과 교수)

윤리는 당위로만 존재할 때 힘을 갖지 못한다. 공동체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응답과 실천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기반한 윤리적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을 이 땅에 비추며, 하나님의 관심이 개인과 교회를 넘어 이웃과 사회,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번 호의 글들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이번 호는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넘어 사회의 구조적 불의와 공동체의 책임까지 성찰하게 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 공동선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 김태룡 (백석대 기독교문화콘텐츠전공 교수)

신앙은 말보다 일상의 태도와 실천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신앙의 가치가 살아남을 깨달았다.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에서 성과와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한 사람의 가능성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함을 되새긴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 박지회 (건국대 교수 / 융합혁신교육센터장)

'이념보다 근본적인 것이 윤리'라는 손봉호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이념은 헷갈릴 수 있지만, 윤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윤리이니, 이념과 상관없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 감사했다 . **- 백두산 (군목 / 미스바교회 담임목사)**

기독교 윤리란 행위자의 선한 동기보다 상대방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깊게 남는다. 그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집단이기주의를 이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론과 경험과 실천이 어우러진 여러 좋은 글들을 기고해 주신 분들과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저자 니버는 인간에 대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진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에 일부 공감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사회적 불의 앞에서 특권계급은 깊이 고뇌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현대 사회 대부분의 불의는 특권계급의 위선보다는 무관심과 무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임태빈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생)**

도덕만은 아닌 것 같다.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이성적 개인과 비이성적 사회, 개성 있는 개인과 획일적인 사회, 신실한 성도와 신실하지 못한 공동체, 이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했다.

- 염동한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시선'에서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유를 이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도덕적인 사회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 선을 이루어가는 윤리적인 삶을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남현우 (청호나이스 과장 / 숭실대학교 문화치유전공 박사과정)**

이번 호를 읽으며 율법주의자와의 구분에 대해서 고민했다. 남들이 보기에 선하게 사는 삶이 '그들의 의'가 되는 경우를 적잖이 보았다. 이들은 자신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자신들이 타인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환경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마음)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윤용순 (전주 예수병원 의사)**

"우리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던져준 '청년 시론'의 이은애 자매(서울대 작곡과 학부생) 글이 마음에 남았다.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지만, 더 이상 교회 편에 설 자신이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볼 때 "우리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적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으로 바꿔내기 위해, 나는 과연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공적 신앙을 가져야 할까에 관한 고민을 안고 책을 덮는다.

- 조예상 (미국 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적 안위에 머물던 신앙을 '공동체 선'과 '공적 책임'의 실천으로 확장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캠퍼스와 일터, 쪽방촌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이웃과 약자를 보살피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든 동역자들의 섬김에 깊은 응원을 보낸다. **- 지상선(한국독서코칭연구소 소장)**

급변하는 가치관과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도덕적 기준마저 흔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일수록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변치 않는 복음의 가치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자 한다.

- 최재윤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제43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종료

주제 : 'AI시대 타락론 톺아보기'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12:3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발표 : 주제 강연 3편 포함 분과별 논문 32편 발표

제3차 기독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시상식 종료

일시 & 장소 : 2026년 10월 24일(토) 12:00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주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주관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수상자 : 대상 원유림(홈스쿨), 최우수상 김하준(홈스쿨 중등부), 김시원(동탄기독학교 고등부), 우수상 구예슬(대전 어은중학교), 김예원(King David School 중등부), 최환희(King David School 고등부), 곽원지(동탄기독학교 고등부), 장려상 신이수(동탄기독학교 중등부), 우혜민(더샘물학교 중등부), 최이한(신목중학교), 김소율(동탄기독교학교 중등부), 유승현(공주사대부고 부설 특수학교), 박주안(거창 중앙고), 김예인(King David School 고등부), 김성아(동탄기독학교 고등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1권 3호 (9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31권 3호는 5편의 이월 논문 포함 30편의 논문 투고되어, 14편의 재심을 거쳐, 심사를 통과한 12편이 게재되었다.
〈신앙과 학문〉 31권 4호는 10월 31일까지 투고가 가능하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명예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법률가회 대표), 안숭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헌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최용준(한동대 교수)
사무국
국장 안선자 **실장** 방윤미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박지회(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헌(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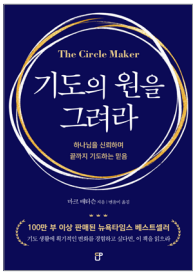
▶ CTC(유경상 대표)

- **지도자 과정** : 7기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기본과정 & 6기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강사과정 진행 중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과정** : 조지 오웰, 〈동물농장〉 & 〈1984〉 개강
- **대학 강의** : 아신대 :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개강 & 평택대 MTS : 〈기독교세계관〉, 평택대 신학과 : 〈기독교 고전읽기〉, 〈기독교 신앙과 현대과학〉 개강.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6년 기독교 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수시모집)** : 기독교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제를 위한 '7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출판 계획** : 〈다음 세대의 시작, 부모〉(부모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지침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하나님, 꿈이 뭐예요?〉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2026년도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기도의 원을 그려라〉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마크 배터슨 지음 I 변윤미 옮김 I CUP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기도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라!!"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저자는 내셔널커뮤티티교회의 설립목사이자 리드 비저너리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는 교회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경험을 생동감 있게 나누고 있다.
응답은 더디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 앞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묻는다. 계속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기도의 원을 그려라〉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길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도의 지평을 자신의 필요에서 다음 세대와 공동체로 넓히도록 도전한다. 이 책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준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2026년 8월, 2026년 9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8월	2026년 9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8월	2026년 9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940,000	7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650,000	740,000		기타급여	400,000	1,150,000
	일반회비	4,260,000	3,840,000		소계	5,255,000	6,005,000
	기관후원금	3,250,000	3,2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0	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402,001	123,544
	CTC후원금	50,000	60,000		우편료	0	0
	VIEW후원금	850,000	900,000		소모품비	0	3,000
	기타후원금	0	0		비품	33,000	0
	월보구독료	270,000	225,000		식비	137,900	225,0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26,280	526,280
	기타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예수금 지출액	468,270	468,270
					회의비	0	112,2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83,8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07,866	94,378
	소계	10,270,000	9,735,000		소계	2,253,347	2,101,902
기타수입	일반이자		1,655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VIEW후원금	842,025	792,190
	법인세환급금		0		소계	901,750	851,91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수입액	486,820	487,050		소계	0	0
				기타	세금	0	0
					잡비	0	0
	소계	486,820	488,705		소계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400,000	0
					세계관기타	0	500,000
	소계	0	0		소계	400,000	5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20,000	12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16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210,000	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게재료	0	4,900,0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890,00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0	0
	소계	330,000	5,180,000		소계	890,00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807,430	792,76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792,760	768,805
	전월 이니시스 입금	470,000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130,000
	소계	1,277,430	792,760		소계	792,760	898,805
당월 수입액		12,364,250	16,196,465	당월 지출액		10,492,857	10,357,622
전월 이월액		21,582,846	23,454,239	차월 이월액 (잔액)		23,454,239	29,293,082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6년 8월)

5천 강대용, 공승건, 곽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샛별,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선옥, 고웅재, 고철웅, 권경호,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옥, 김샛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정,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은덕,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다니엘 김,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광제, 박능안, 박동현, 박명옥,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현호,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숭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 철,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헌,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일, 이종철, 이중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수아, 최영,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한동빈,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인,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고길현,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종원, 김태진, 문석윤, 박기모, 박문식, 박흥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근호,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헌, 최현종, 한화진, 허정도,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배성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흥,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김정모, 우병훈, 5만 강다엘, 강연정, 김종우, 김태훈, 양승훈, 윤석찬, 윤헌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김주경, 석종준, 송종철, 9만 강진구,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12만 김민철, 최태연, 15만 삼일교회, 최현일, 20만 남서울교회, 박동열, 수영로교회, 장수영,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100만 허성재(전주은)

계 7,090,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향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흰돌교회, 15만 삼일교회, 최현일,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00,000원

전체 10,390,000원

회원후원 (2026년 9월)

5천 강대용, 공승건, 곽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샛별, 김성욱, 김성찬, 김영주,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옥, 고웅재, 고철웅, 권경호,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옥, 김샛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정,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은덕,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태,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다니엘 김,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옥,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현호,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숭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의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한,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 철,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헌,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일, 이종철, 이중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성탁,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추진연, 표민호, 한동빈,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인,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용란, 기민석, 김보경, 김선자,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문석윤, 박기모, 박해일, 박흥식, 빛과소금교회, 안선자, 오성수,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정훈, 조성권, 채기헌, 최현종, 허정도, 2만5천 한윤식, 3만 강진구,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전상흥, 정민, 최동진, 최용성, 최용준,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5만 강다엘, 김종우, 김태훈, 손정엽, 양승훈, 엄고운, 윤석찬, 윤헌준, 이대경, 이상민, 전주람, 전희경, 정은애, 추명순, 6만 김길원, 김동혁, 석종준, 송종철, 송호엽, 엄준용, 10만 김지원, 김태황,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김성현, 소은희, 최태연, 홍숙의, 15만 삼일교회, 최현일,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6,55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향남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흰돌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00,000원

전체 9,855,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샛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날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헌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샛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헌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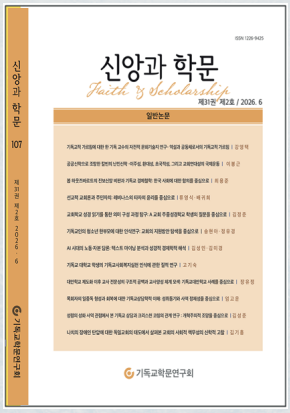
자세한 후원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주십시오. 사무국 : 02) 754-8004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7년 3월호(32권 1호)
투고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5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투고 규정 8.(3)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각주 예시 확인

* 투고 규정 10.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 40만원), 전일제 대학원생 15만원으로 게재료 인하, 심사료 7만원 신설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추가

* 논문 심사 세칙 제2조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